



# 時計塔

SIGETOP



2005년 4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2권 2호

142-04 Bayside Avenue, 10U A, Flushing, NY 11354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李 漢 中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宋 寬 鎬

## 한국 보건복지부 78개 의료기관 첫 평가 서울대학병원 최우수 선정

의료진의 임상수준을 제외한 환자진료 및 운영체계, 진단검사체계, 중환자실 시설 장비 등 의료서비스 및 진료 전반에 걸쳐 서울대병원이 대형병원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선택권 확보 등을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42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의료기관 평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1월 환자의 권리편의, 진료체계, 병동,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계, 약제 등 18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최상위 그룹으로는 A등급이 10개 항목을 넘은 반면 D등급은 하나도 없는 서울대 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꼽혔고,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과 경희대의대 부속병원, 강릉아산병원,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은 9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의 경우 환자의 권리와 편의, 감염 및 시설 안전관리, 중환자 등 12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수술관리체계에선 C등급을 받았다. 인

력관리와 진료체계, 응급 등 5개 항목에선 B등급으로 분류 됐다. 서울아산 병원은 12개 항목에서 A등급을 인정받았으며, 4개 항목에선 B등급, 수술관리체계와 응급 등 2개 항목에선 C등급이 부여됐다. 삼성서울병원은 A등급 10개 항목, B등급 7개 항목, C등급은 1개 항목을 각각 얻었다. C등급은 응급 분야였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은 4개 항목이 A등급, 10개 항목이 B등급, 4개 항목이 C등급을 기록, 중위권으로 처졌다.

복지부는 3년마다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올해는 300병상 이상의 117개 종합병원을 평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병원별로 각 항목에 대한 등급이 드러나면서 병원들간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소비자들이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병원들은 평가결과를 놓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등급을 받은 병원들은 시설 보완 및 확충,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부산(釜山)에서 바라본 도요 및 서울대병원 전경

## Notice of the 2nd House Delegates' Meeting

Friday, July 1, 2005 7 pm  
Gull Lake View Golf Club and Resort  
Kalamazoo, Michigan

Dear Alumni and Friends,

SNUCMAA has set up a golf retreat at Gull Lake View Golf Club and Resort for our alumni, which would be conducive to the socializing of our alumni and classmates while taking care of our businesses of our Associ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event is socializing, and the other

purpose is to introduce our next president, Dr. Choi Joonhi, and his officers to the House of Delegates and to take care of other simple businesses. Those who are not the delegate members are not required to attend the business meeting at 7 pm, July 1 (Friday).

Hahn Joong Lee, M.D.  
President

For more information Page 16.

# 2004-2005 제1차 대의원회의 초록



일시: 2005년 3월 9일 오후 4시 30분  
 장소: Renaissance Orlando Resort,  
 Orlando, Florida  
 사회: 이태석 (67) 총무  
 참석자:  
 정구영(57) 이만택(58) 김문경(60)  
 정정수(62) 이상우(62) 최준희(64)  
 조동준(64) 이한중(65) 민경탁(65)  
 임현재(65) 황규정(65) 채무원(65)  
 조의열(66) 이민우(67) 이태석(67)  
 윤효윤(69) 오동환(71) 문대욱(73)  
 Proxy:

노용면(55) 김용식(55) 최종진(59)  
 김명석(59) 이희경(61) 김유홍(61)  
 조명호(62) 구정울(62) 김태환(64)  
 이명희(66) 정양수(66) 최영자(66)  
 문광재(68) 이건일(68) 김홍서(69)  
 도상철(69) 엄규동(69) 인정길(70)  
 노재홍(71) 정인용(71) 권영조(72)  
 서인석(73) 오인환(73) 김원정(75)  
 강찬석(77)

1. 성원 점검 후 오후 4시 30분에 개회 선언.

2. 2003-2004 제2차 대의원회 회의록(06/30/2004)을 수정 없이 통과.  
 3. 이한중 회장 인사  
 - 2004년에 타계하신 김현규(47), 박승서(48), 박성유(62), 윤재운(62), 김동민(67) 동문들을 위해 추도 묵념  
 - 학술대회를 3월달 Orlando에서 열리게 된 동기와 배경 설명  
 -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열리게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분들, 특히 Scientific Session 준비에 노고가 많은 윤효윤 동문의 수고에, 이하의 인사.  
 4. Unfinished Business:  
 -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website인 www.snua.net/medicine를 이용하여 이를 SNUCMAA의 website로 쓰자고 제의되었으나 공식적인 결론은 없었음.  
 - 지난번 The Board of Directors 회의에서 제기된 강철용 교수 (Professor of Virology,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Faculty of Medicine)의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명예회원 추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했음.  
 5. Secretary's Report: 별지 참고.  
 6. Treasurer's Report:  
 - 2005년 2월 28일 현재 재무 사항 - 별첨 참고  
 7. Committee 보고  
 \* Finance Committee (채무원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 Scholarship Committee (조명호 위원장): 4월자 시계탑에 장학생 선발 광고가 나감.

\* Fund Raising Committee (권영조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서면 보고, 별첨 2 참고  
 \*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서면 보고, 별첨 3 참고  
 \* Advisory Committee (이만택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 By Law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 Nominating Committee (이재성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 Green Project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8. New Business:  
 - 노령화되고 있는 동창회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SNUCMAA의 website (www.snua.net/medicine)를 매체로 이용, 개개인의 취미별로 동창회원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소위 Silver Project (Ad Hoc Committee for Senior and Retiring Members; 별첨 4 참고)를 민경탁(65)동문이 제의. 민경탁 동문이 다음 회기에도 계속 Ad Hoc Committee의 책임을 맡도록 가결했음.  
 - 본국 서울의대 총동창회 이길녀 회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08년 현대의학 100주년 기념회에 \$2,000을 donation하기로 가결했음.  
 9. 폐회: 오후 5시 45분 기념 촬영 후 폐회

# 2004~2005 동창회비 납부하신 동문 명단

2004년 7월 1일 부터 2005년 4월 10일까지

- 41 이규용 47 장석주 48 장석철 한용현
- 49 고영철 김지익 박근수 이형모 정전길 50 나수섭 이철남 주 일
- 51 곽 흥 박준홍 오정희 이상하
- 52 김은태 김정준 김호연 이봉기 전병규 53 김형건 정약훈
- 54 김갑균 이동식 이은희
- 55 김용선 노용면 박병원 서경만 양겨영
- 56 김신형 박상기 서상철 손종수 신명수 윤신원 이연찬 조동립 주창준
- 57 강영섭 김양호 김용진 김일훈 동형근 박건호 유상환 윤 찬 이동성 이민자 이하길 임종식 정구영 정진묵 정희영 한성택 황대연
- 58 김기태 김백년 김수산 김숙희 김시한 김해남 노인규 박용화 박창희 박호현 배영섭 신상균 유지열 이동목 이만택 이상설 이운순 이상집 이종국 이종용 이희성 정순일 최정희 최창송
- 59 김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용덕 김은섭 나길진 박형돈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심충섭 유대준 윤만중 이교락 이영모 이원호 임낙중 임원기 정태진 최용천 최종진 최해숙 한달수 한성업
- 60 권기홍 김문경 김완주 김인환 김재구 김재정 김주택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송영조 엄도승 엄극용 오신중 우병혁 이광준 이상일 이순환 이애영 이종석 이효빈 임종원 임필순 조재동
- 61 강세부 강창욱 고의걸 김성준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김화섭 박승균 박장생 박준환 서휘열 손기용 손주현 안창현 이재두 이재승 이희백 이희경 정의철 정철용 조경하 조은순 최용성 최지원 홍창기 황현상
- 62 강광원 구정울 권익현 김석식 김재흠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박종건 박진수 박찬형 박태진 문상규 송용두 오태요 이경욱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선택 이용길 장순필 장항순 정정수 정 태 정훈일 조명호 조 용 진흥우 한상호
- 63 강영호 고영희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진홍 김태웅 김택수 김충열 노인규 박병학 박세록 박용준 마동일 송용덕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명규 윤영섭 윤영옥 이기환 이능석 이법세 이병준 이송현 이흥빈 임춘수 장세곤 조열하 조한원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선우건영
- 64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성민 박세준 박한영 방호준 송관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덕겸 오태희 유 강 유광현 유창남 유효명 윤희기 이길수 이용만 이유찬 이재풍 이정은 이정필 이종성 이주영 이진용 이흥표 임대묵 임병훈 전희택 정유석 정인태 조동준 조성준 최준희 허선행 흥선경
- 65 강길원 권태해 김대연 김옥현 김택환 문형성 민경탁 박수안 백혜태 서좌일 서홍석 손광호 신백효 안경식 윤원길 이법석 이정희 이재진 이종희 이한승 이한중 장재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채 진 최영인 최재근 한원민 한재은 홍수웅 황규정
- 66 권일성 김강길 김용재 김우신 김의신 김충규 남궁승 박용길 박준석 민발식 심정섭 이 룡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이인수 이종현 장한교 정양수 조관상 조의열 조충열 최순채 한일성 황 철 허서룡
- 67 강명식 경우현 김동수 김명선 김상복 김성철 김영곤 김영철 김태웅 박종민 방정화 문경용 오세환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육태식 이규찬 이근용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진수 이태석 이태안 임 번 지일성 최무용 최승용 최재홍 최창식 한서동 한영수
- 68 김경인 김성열 김영남 김주평 김진홍 김 철 김태기 김희주 박정식 서관우

- 68 서영일 서운석 서진석 송창호 안세현 이건일 임공세 차재철 최 철 홍광신
- 69 김영일 김운성 김재욱 김창남 김홍서 도상철 박수웅 변영석 서 랫 서만길 송기인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육순재 윤효윤 이송공 이충호 이지훈 임용규 전덕성 최종일 최종진
- 70 김광현 김우영 김일균 김형달 방준재 문성길 여준구 이명상 이종성 인정길 장극기 조경호 조남현 조영갑 최광택
- 71 강유규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재홍 김유식 김창구 김효순 김 훈 노재홍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정자 송창기 오동환 오세환 이원택 장 철 정인용 조병선 조세진 최수강 최영철 홍성진 황동하
- 72 김재석 박병영 석창호 오용호 이신재 이정민 이철재 장병호 정진우 최인섭 황용규
- 73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이계석 이영복 임준형
- 74 권철수 김웅진 이진현 이홍제 최태식
- 75 김병호 김원정 김자여 박인영 전경배
- 76 김승관 박세화 유영걸 77 강준희 최호준
- 78 김동수 81 김승현
- 83 심인보 85 임하진
- 01 김태곤 03 염선영 이상 484명

## 권기홍(60)동문 장학기금 1만불 쾌척

**2004-2005 장학기금 기부하신 분(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4월 6일까지)**  
 김신형(56) 100 최창송(58) 100 한성업(59) 100 권기홍(60) 10,000  
 박명근(60) 75 박승균(61) 100 황현상(61) 75 박태진(62) 200 이기범(62) 100  
 조 용(62) 100 왕규현(63) 100 임춘수(63) 100 한기현(63) 100 이재풍(64) 100  
 임병훈(64) 100 이한중(65) 200 박준석(66) 100 김주평(68) 75 김진홍(68) 50  
 이건일(68) 500 박수웅(69) 200 이송공(69) 200 전덕성(69) 100 최종일(69) 100  
 김우영(70) 100 여준구(70) 100 김유식(71) 75 김효순(71) 125 배성호(71) 100  
 서정자(71) 100 장 철(71) 75 정인용(71) 100 최수강(71) 100 김웅진(74) 100  
 김자여(75) 100 유영걸(76) 15  
 Total \$13,965

**2004-2005 Green Project 기금 기부하신 분(2004년 7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김호연(52) 50 김교안(59) 100 엄극용(60) 100 이선택(62) 75 임춘수(63) 100  
 이한중(65) 100 권일성(66) 75 김성열(68) 300 김진홍(68) 50 이건일(68) 500  
 이송공(69) 200 이원택(71) 050 정인용(71) 100 조경호(72) 75 서인석(73) 100  
 김웅진(74) 100  
 Total \$ 1,975

**2004-2005 Donation 하신 분(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4월 6일까지)**  
 최용성(61) 75 한광수(63) 75 민경탁(65) 100 이한중(65) 100 천양곡(69) 200  
 정인용(71) 100  
 Total \$ 650

권기홍(60) 동문께서 장학기금으로 \$ 10,000을 특별히 기부하셨습니다. \$ 10,000 이상은 본인의 성명으로 기금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 동 문 동 정

**한용현(48)** 지난 1월 후로리다 French Mun's Creech에서 미술전시회(그룹전)을 가졌다. 미세스 한용현(서울음대 57년 입학)도 지난 2월 4일 후로리다 Palm Beach Garden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한동문의 전화번호는 (561) 624-2924이다.

**박병원(55)** 지난 2월에 coronary artery by-pass 수술을 받았다.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다.

**이만택(58)** 작년 11월, 필라델피아의 Capital Health System에서 은퇴했다. 과거 30년 동안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성실한 의사로 알려져 왔다.

**박경민(59)** 박동문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뉴잉글랜드 미주한인이민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뉴잉글랜드 한인사'와 기념문집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뉴잉글랜드 한인사회 형성과 교육, 과학, 문학, 예술과 의료계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지난 2003년 부터 자료수집과 집필에 돌입하여 2년 6개월만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최진훈(70)** 최동문이 지휘 감독 운영하고 있는 뉴욕첼메오케스트라의 춘계 발표회가 지난 4월 9일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머진 콘서트 홀에서 있었다.

## 윤재균(62)동문 별세

펜실베이니아주 Erie 시에서 방사선과 개업을 했던 윤재균(62) 동문이 지난 12월 22일에 별세했다. 윤동문은 Stroke으로 여러해 동안 고생한 바 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윤영임 여사와 엔지니어인 딸 Jurie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으며 방사선과를 전공한 아들 Eric 군이 브라운 대학병원에 어텐딩으로 있다.

## 남가주지부 소식

남가주 지부는 지난 1월 5일 로스앤젤스의 Oxford Palace에서 1백여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선후배들의 정겨운 덕담과 여러 연예인들이 출연한 가운데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2005년에 수고해줄 임원진을 다음과 선출했다.

회장 이성춘(70), 부회장 차민영(82), 총무 오도명(83), 재무 김동훈(77), 골프 박일우(77), 동창회소식 이원택(71), 오렌지 지역 대표 오동석(72), 특별활동 최원일(70) 동문.

## 69년 동기회 웹사이트 개설

69년 본국 동기회에서 동기들의 근황, 현 주소록과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69년 동기들뿐 아니라 동문들은 누구나 방문하여 글을 올릴 수도 있다. 주소는 <http://www.snumc23.com>

## '자랑스런 서울의대동창'이란?

'자랑스런 서울의대동창'은 지난 1991년부터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학장실에서 졸업 40주년을 맞는 학년에서 두 사람씩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보통 한국에서 1명 그리고 미주에서 1명을 선출한다.

그동안 미주에서 선출된 동문들은 1991년 곽홍(51), 1995년 노용면(55), 1996년 신명수(56), 1997년 정구영(57), 1998년 이만택(58), 1999년 유태준(59), 2000년 한성수(60), 2001년 이해원(61), 2002년 정정수(62), 2003년 박세록(63) 한기현(63), 2004년 송관호(64) 동문 등이 수상했다.

## 합춘회관 동문 숙박시설 사용절차 개정

김병구(59)동문이 시계탑 32권 1호에 게재된 합춘회관 동문 숙박시설 사용절차를 보고 문의한 결과 합춘회관 관리부장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다.

2002년 10월 합춘회관이 준공된 이래 합춘회관 7층 방 2개의 숙박시설은 회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 빈공간으로 방치 할 수 없어 사무실로 개조하여 연구사무실로 임차를 놓았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4일 합춘회관 관리부장 이세운

## 박명근동문 함춘대상 학술연구부문 수상

본국(회장 이길여)는 지난 24일 제6회 함춘대상에 사회공헌부문 문태준(전 보사부장관), 의료봉사부문 박영관(부천세종병원장), 학술연구부문 박명근(60)동문 등을 선정하고 지난 3월 28일 본국동창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수상했다.

함춘대상은 학술연구,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들을 현창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수상자 선정은 각 지회와 동기회에서 광범위한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업적을 엄정히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미주 동문으로서는 정구영(57), 김윤범(58) 동문에 이어 세번째로 함춘대상 학술연구부문에서 수상한 박명근(60)동문은 텍사스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현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소아심장학 교과서 출판 및 임상약리학 분야에서 술한 연구업적을 발표해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 받고 있다.

## 인제대 뇌과학기술연구소 대전에 개소

인제대는 최근 한화중양연구소 중추신경계 연구팀을 영입, 뇌과학연구소를 대전에 건립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개소식에는 인제대 이사장 백낙환(50) 동문을 위시하여 100여명의 유명인사가 참석했다.

뇌과학연구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질환 등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담당한다. 정부의 뇌연구 촉진법 제정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뇌과학 분야의 연구소가 사립의과대학으로는 가천의대와 인제의대에 생기게 되어 많은 동문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 최순채(66)동문 전국 아마추어 스키대회 우승

뉴저지 워렌에서 정형외과의로 활동하고 있는 최순채(66)동문이 전국 아마추어 스키대회인 내셔널 챔피언십 스키대회에서 60세 이상 그룹에서 우승을 차지 노익장을 과시했다.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유타주 팍 시티 스키장에서 열린 2005 NASTAR National Championship에서 최동문은 60~64세 그룹 대회전 부문에 참가, 이를 연속에 걸쳐 펼쳐진 4번의 대회 전경기에서 기록이 가장 우수해 17명의 선수를 제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아마추어 스키대회로 전국 최대 규모인 이 대회는 미 전역의 120여개 스키장에서 예선을 치러 자기 성별, 연령 그룹 3위 내까지 입상자들에게 출전권이 주어진다. 올해는 미주 각지와 캐나다에서 3 ~ 83세까지 총 1,070명의 스키어들이 모여 자웅을 가렸다. 동양인은 최동문과 일본인 한사람 포함해 2명이 참가.

40세 때 자녀들과 함께 처음 스키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준 프로급의 기량을 가진 최동문은 현재 미동부 한인스키협회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금메달 수상을 기뻐하고 있는 최순채 동문



## 자궁암 예방 Vaccine이 문턱에



UAB(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의과대학 및 병원 Gynecologic Oncology 교실 조교수로 근무하며 또한 이곳 종합 암 센터에서 Cervix Cancer Vaccine research team의 leader로 일해온 Warner Huh, MD.(허선행 64 동문자제)는 지난 1월 11일에 Cervical Cancer Vaccine의 전망에 대해서, Birmingham News, CBS, NBC, Fox Channels 등등과 News Conference를 가졌다는 소식이다.

과거 30여년간의 연구로 성교로 옮겨지는 HPV(Human Papilloma Virus)가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을 알게됐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 Vaccine 연구 및 제조가 가능하게 되어, 현재 두가지의 Vaccine이 Glaxosmithkline 과 Merck 두 제약회사에서 제조되어 임상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24개월내에 FDA 허락이 나올 것으로 확실하다고 Dr. Huh는 말하고 있다.

매년 세계적으로 25만명의 생명을 빼앗기는 이 암의 예방이 곧 조기 접종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에 흥분을 금치못하며 이 두가지의 Vaccine이 "Incredibly, Incredibly effective"라고 Dr. Huh가 말했다고 News Conference 내용이 지적하고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205)934-4986이나 [www.kaoh@uba.edu](http://www.kaoh@uba.edu)로 연락하길 바란다.

# 2005 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에서는 2005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문 자녀 및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 및 유학생, 서울대학교와 서울의과대학 동문의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분야:** 의학, 과학, 경제, 법률, 문학, 신문방송, 예술분야 및 체육특기자 등 전공분야

**모집인원:** 6명

**구비서류:** 신청서(동창회 사무실에 비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자필소개서 추천서 2통, 단체장 추천서 (단체 또는 협의회 추천서)

**신청마감일:** 2005년 5월 20일

**접수 및 문의처:** SNUCMAA of North America / 142-04 Suite 10U-A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조 명 호

# 제 22차 학술대회를 마치고

총무 이태석(67)

예년에는 언제나 7월 초에 하던 학술대회를 이번에는 3월 10일에서 3월 12일까지 3일에 걸쳐 Orlando, Florida에 있는 Renaissance Hotel에서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관례대로 쓰였던 하계 학술대회가 3월에 열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계라는 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04명이나 되는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근간 여러 해 중에서 가장 성황된 학술대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예년에도 그러하셨듯이 서울의대 총동창회장 이길여 선생님이 하 여러분들이 떠나면 거리에 불구하고 한국에서 오셔서 저희 모임을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들이 참석해 주셨고 특히 마지막 날은 108명이나 참석해서 그야말로 대성황이었습니다. 또 기대했던 대로 따뜻하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서 금상첨화는 가히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9일 Orlando에 도착한 날 저녁에 있었던 reception buffet dinner나 3월 11일과 12일에 각각 있었던 Talent show, Banquet dinner에 역시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덕분에 선후배 동문들의 재회의 시간들이 참으로 흥겨워서 흐뭇했

습니다. 학술대회 전날 3월 9일에 열렸던 대의원 회의에서는 (1) Professor of Virology,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Faculty of Medicine에 계신 강 칠용 박사가 저희 미주동창회 명예회원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2) 민경탁 동문께서 소위 Silver Project의 Ad hoc committee의 책임을 내년도까지 계속 맡아주시기로 가결했고, (3) 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계신 이길여 선생님이 준비위원회 회장을 맡게 된 현대의학 100주년 기념회에 미주 동창회의 이름으로 금일봉을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한중 회장 사모님의 노력의 결실로 예년처럼 다채로운 spouse program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혜원, 민경탁 동문과 원 선영 박사(이태안 동문 부인)께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고, 이채롭게도 동문 강태수 부부께서 social dance의 특강도 있었습니다. 또 동문 정구영, 이희성, 오세환, 민경탁, 조의열 등과 유부강(Mrs. 김영곤), 김영희(Mrs. 이건일) 선생님 등이 동서양화와 사진 등을 출품하셔서 미술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훌륭한 저희 동문 faculty들 이외에도 외부의 인사 5명을 초빙해서 여러 각도에서 깊이가 있는 scientific conference가 되도록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scientific affairs의 책임을 맡고있는 윤효윤 동문이 불철주야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Orlando에 오셔서 저희의 convention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조언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울러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이한중 회장님과 임원진 황규정, 조의열, 윤효윤, 오동환, 권영조 동문들에게 자축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3일에 걸쳐 golf 대회를 Orlando에서 가장 좋은 golf course라고 하는 Hawk's Landing에서 열었습니다. 매일 많은 동문



50명 가까이 모인 65년 동문들 합창으로 장기대회에 나서고 ...



73년 동기들의 대단한 장기자랑

**The 22nd Annual M**  
Renaissance Orlando Resort, M



서로 격려하시는 이길여 이한중 두분 회장님



동창회 미전을 개막하면서



메달리스트 홍수웅 동문(위) 여자 1등 미세스 이용길(아래)

# 졸업 50주년 모임에 갔다 와서

노용면(55)

우리가 의사가 된지도 벌써 반세기가 되었다. 1955년 3월 28일, 우리들의 졸업식을 올리던 날은 날씨가 흐리고 꽤 추웠다. 졸업식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대통령께서 하두 추워하시길래 누군가가 그에게 담요를 걸쳐 드리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때 나의 나이가 25세였다. 어려운 학창시절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우리들이었다. 그런 후 우리들은 흩어지고 흩어져서 몇몇은 미국에까지 왔다. 금년에 졸업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하와이에서 만났다. 한국에서 12쌍의 부부가 왔고, 미국에선 세쌍의 부부가 참가했다. 다른 동기들은 여행하기가 힘들다면서 참가를 사양했다.

오래간만에 옛 친구들끼리 만나서,

서로가 50년전의 젊었을 때 시절로 돌아가 보려고 애썼으나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 결국 우리들은 노인생활의 이모저모를 고백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젊은 배우가 늙은이 역할을 하는 것은 쉬워도, 늙은 배우가 젊은 사람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이 기억났다. 5년전에 졸업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캐나다 라키산맥에서 만났었는데, 그때에 비해 친구들은 거동이 많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에서 몇 살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동기들이 졸업 50주년을 기념하고 즐기려는 마음만은 한결같았다. 젊었을 때 농담을 잘 하고 노래를 잘 부르던 친구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옛날을 생생히 되짚게 했

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더니 말이다. 그래도 이야기나 노래의 내용만은 꽤 젊었다. 구수한 이야기들이 청중들의 가슴을 녹였다. 더군다나 그들의 말투와 목소리가 50년전 그대로이니, 듣는 사람들을 옛날 분위기 속에서 해매게 했다. 동기들의 부인들은 피부관리를 잘해서인지 훨씬 덜 늙어 보였다. 이분들이 모임의 분위기를 계속 도왔다. 그전에는 모임에서 말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던 친구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끔 맞장구를 쳐 웃음바다를 만드는 순간들도 있었다. 술맛이 좋으려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 부부가 하와이에 네번 갔다 왔는데, 이번 여행은 참으로 색달랐다. 4박 5일 동안 우리 동기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모임이 끝날 때 좀 되어 누가 나에게 묻기를, 하와이는 일기가 좋고 놀이터도 많으니 그곳으로 이사를 오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주저없이 대답했다. 우리 아들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다. 아무데 갔다가도 걸어서 돌아올 수 있던 그 옛날 고향 집 처럼 가깝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와이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다.

나의 동기들이 계속 건강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즐거운 여생을 보내기를 바란다. (2005년 3월 28일)



미국에서 참가한 세 동기들 (좌로부터 노용면, 김웅식, 양지영)

## 모닥불의 餘韻

-15기 겨울 모임에 다녀와서-

정태(61)

나는 1957년 한국에 귀화하여 처음 15기 학우들과 근 일년을 공부를 같이 했다는 자그마한 인연으로 (실은 여러 학우들의 충고도 있었지만 나의 억지 노름으로 해서...) 여러번 모임에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받아들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15기 학우들이 나를 같이 안해주었으면 이제껏 서운함을 어찌 할 수 없었을테지만... 이분들은 내가 한국에 귀화하여 처음 사귀 분들이니까!

더욱이나 우리 곁을 떠나신 하상배 또 조홍 학우들과도 같이 할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더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겨울모임에서 고 하상배 학우가 주도하여 부르기 시작했다는 "모닥불"을 합창했을때는 짧은 일년반이라도 (이리 저리 불러다니며 몸씨도 분주하게 살았던 때) 처음 만나 큰 희망과 포부 정열에 찬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지낼수 있었고, 또 이국만리 미국에 와서 짧은 시간이나마 만나 같이 했던 시간 시간들이 아롱이는 기억 속에 내 가슴에 스며들어 차곡차곡 적어 줄을 어찌할 수 없었다.

"모닥불"

하상배 학우가 애써 가르쳐가며 모임때마다 다시 다시 애창했다 들으니 고인의 현견이 새삼 감사하고 자랑스럽기만 느껴진다.

모닥불의 요염한 불길같이 큰 희망과 포부 정열을 휘둘 태워가며 또 나,

너 그사람 서로 우리가 되어 못 이마기를 속삭이며 내일을 기약하던 아니 그렇게 하여 보기를 꿈꾸어 보던 지난 날들이 새삼스럽기만 한다.

하상배! 참으로 감사하오이다. 우리 목청을 돋구어 다시 불러올린 "모닥불" 들으셨으니까!

모닥불 피어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속에 재를 남기고 말 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삶이 요염한 불길(희망, 포부, 정열, 사랑)을 날리다 연기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그러져가는 모닥불 같은 것이 아니겠소.

휘휘 타다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재가 되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요염한 불길은 끝없이 더 요염할지이다!

고 하상배 학우가 충만한 자애심과 지족감의 불길에 활활 타다 떠나신것 같이 우리도 남은 삶을 그리 태워가며 살려 마음 다져 봅니다.

크고 작음 탓 안하고 사리없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 사람도 있는 그리하여 우리 서로가 되어가며 말입니다. 마음 열어 끝없는 이야기 나눠가며... 또 미련없이 고요히 팔락이다 무진의 향기로운 연기(緣起)나마 이어 남겨가며...

모닥불 피어놓고 우리 서로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 월터 아버지

서량(69)

19세기 중엽 아일랜드를 감자기근이 휩쓸고 간 얼마 후 월터 아버지는 세상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열 아홉 살 청년에 조국을 저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다.

월터 아버지는 몇 년 지나 뉴욕시 전차 운전수로 운 좋게 취직이 되고 몸매 늘씬한 아이리쉬 극장주인 딸과 결혼하여 자식 여덟을 두는데 그 중 넷은 일차세계대전 직후 유행성 독감으로 죽고 월터를 포함해서 넷만 살아 남는다.

당시 뉴욕시에 전차가 없어지면서 버스가 처음 생길 무렵이라 전차 운전수들은 너도 나도 버스 운전수 자격증을 따는 일이 급선무. 월터 아버지는 대망의 버스 운전 실기시험을 며칠 앞두고 흰 일곱 살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때 월터 나이 열 넷.

근래에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여든 두 살의 월터는 이른 아침 현관에서 노란 금테가 번쩍이는 전차 운전수 모자를 눌러 쓰고 조금씩 침을 뱉어 가며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는 아버지를 그리워 한다. 추운 겨울 저녁이면 코밑 황제수염에 송알송알 서리가 맺히는 월터 아버지가 나도 그림자.

(현대시학, 2005년 4월)

**2005년도 Annual Ball**

**2005년 11월 19일 (토요일)**

**페리세디움 대원, 뉴저지**

1900년 혈액형 발견으로 수혈이 가능해져 엄격히 말해서 수혈이 최초의 장기이식이라 할 수 있으며, 잇따라 1905년 각막이식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체장기(solid organ)의 이식은 여러 번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났다. 프랑스에서 1906년 사람의 신장이식 약 50건을 시행했으나, 몇일 이상 가지 않아 모두 실패로 끝났다. 1950년 미국 시카고의 한 외과의사는 난성신장병(cystic kidney)환자의 한쪽신장을 절제하고 건강 강한 신장을 이식했는데 53일간 무사하다가 거부반응으로 기능을 잃어 제거했는데, 환자는 병적인 한쪽 신장으로 5년 더 생존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이식한 장기의 기능생존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의 케이스만을 성공한 장기이식으로 인정함으로써, 1954년 12월 23일 닥터 Murry팀의 신장이식이 역사상 최초의 장기이식이 되어있다. 이들 장기이식개척자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과정에서 '동물해부반대단체'의 저항을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과거 여러 사람이 실패한 모든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Murry팀은 건강인이 제공한 장기를 절제하는데 대해 종교계와 법조계와 사회지도층의 지지를 얻어야만 했다. 그리고 일부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난도 감수해야만 했다고 전한다.

**거부반응 장애극복**

오늘날 장기이식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수술이 되었다. 1954년 장기이식이 성공한지 오래해 지나서부터 면역억제를 억제하는 6-Mercaptopurine, Azathioprine, 스테로이드 등 '항거부반응약제' 사용을 하게 되어 급성거부반응을 극복하게 됐으며, 환자에 따라 지속적인 약물사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생겼다. 항거부반응약물에 동반하

**Wine은 다른 술에 비해 심혈관질환에 더 효과적이거나?**

적당량의 음주(moderate drinking)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100편이상이며 그렇지 않다는 연구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와인이 맥주나 증류된 술(spirit)보다 더 효과적인지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많다. 와인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는 프랑스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미국에 비해 약 절반이며 영국과 북유럽국에 비해서 약 3분의 1이다. 이 현상은 French Paradox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 원인이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매일 와인을 마시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간경화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프랑스에 더 많다. 와인이 다른 주류와 차별화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포도의 껍질과 씨에 Flavonoids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Flavonoids는 적포도 뿐만 아니라 홍차, 코코아, 초코렛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코코아에 많이 들어있는 flavenol은 Nitric oxide의 합성을 통해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J Hypertens 2003; 21: 2281-6).

Endothelin(ET-1)은 혈관 수축, endothelial function의 악화, leucocyte adhesion, 혈관평활근의 증식 등 나쁜 작용을 하는데 flavenol이 ET-1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Nature, 2001; 414: 863-864).

이 외에도 flavenol은 강한 항산화작용과 항응고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적포도와 적포도주가 endothelial-dependant vasodilation을 시킨다고 보고되었다(Am J physiol, 1993; 265: H 774-778; Circulation, 1999; 100: 1050-1055).

는 심한 부작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약물사용을 차츰 떼버리는(wearing) 방법이 현재 연구진행중이다. 지금까지 장기이식 받은 여자에서 태어난 아기는 2만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출산시 산모의 합병증(감염 등)이 높고 또한 신생아가 자라서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에 걸릴률이 높으리라 시사하는 동물연구 결과도 있다.

**장기부족**

오늘날 장기이식에 가장 심각한 장기부족문제는 앞장에서 언급한바와 같다. 기증받은 장기는 젊은 사람 것일수록 좋겠지만 장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장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93년 92세 여자의 간장을 62세 환자에게 이식시켜 4년 반이나 수명을 연장 시킨 케이스가 가장 높은 장기이식의 기록이다.

**(표1) 미국 장기이식에서 장기와 환자의 평균생존률(%)**  
-1993 - 2002년위 1, 5, 10년 생존율

Table with columns: Organ, Survival (1 Yr., 5 Yr., 10 Yr.), % of grafts, % of patients. Rows include Kidney, Pancreas, Liver, Heart, Lung.

**(표2) 각장기의 기증종류별 이식과 대기자 현황**  
-1993 - 2003

Table with columns: Organ, number of recipients, no. of patients on waiting lists, % receiving transplants, number of recipients, no. of patients on waiting lists, % receiving transplants. Rows include Total, Cadaveric donor, Living donor for various organs.

와인이 다른 주류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다는 가장 낙관적인 연구로 Copenhagen city heart study를 들 수 있다(BMJ 1995; 310: 1165-1169). 이 연구에서 30-70세의 남자 6051명과 7234명의 여성을 10-12년간 전향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와인을 마시는 사람에서

였다. 모든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분석한(meta-analysis) 결과 2개를 소개하였다. 앞에 언급한 연구팀이 1996년에 발표한 meta analysis에 의하면 12개의 전향적 연구에서 4개의 연구에서는 와인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반면, 4개의 연구에서는 맥주가 예방 효과가 있

**EVIDENCE BASED CARDIOVASCULAR MEDICINE**

**적당량의 음주는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이종구(57)**

와인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49%감소하였다. 그러나 맥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된 술은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한 또 하나의 연구는 Kaiser Permanente Medical Center에서 발표하였는데(Am J Epidemiol 2003; 158: 585-596) 와인을 마시는 사람에서 맥주나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와인과 다른 주류가 심근경색 예방에 차이가 없다는 대표적 논문으로써 Roles of Drinking Pattern and Type of Alcohol Consumption in Coronary Heart Disease in Men을 들 수 있는데(NEJM, 2003; 348: 109-118) 이 연구에서 38,077명의 남성의료인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술을 1주일에 1잔 이하로 마신 군과 1주일에 3-4일 또는 4-5일을 마신 군을 비교하였는데 1주일에 1잔 이하로 마시는 군에 비해 3-4일 마신 군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은 32%(95% CI, 0.55-0.84)감소하였으며, 4-5일 마신 군에서는 37%(95% CI, 0.54-0.74)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 위험률은 알콜을 마실 때 10g 이하를 마신 군과 30g 이상을 마시는 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류의 종류는 심근경색증 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도하

였으며 4개의 연구에서는 위스키 종류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보고하였다(BMJ 1996; 312: 731-736). 2001년에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Science Advisory Board가 "wine과 그대의 심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circulation, 2001; 103: 472). 이 보고서에는 wine이 다른 주류에 비해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확실히 더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포도주를 마시므로써 적포도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였다. 그 후 이태리의 의학 연구자들이 Circulation에 Meta-Analysis of Wine and Beer Consumption in Relation to Vascular Risk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Circulation, 2002; 105: 2836). 이 논문에서는 1일 와인 섭취량이 150ml(알콜함량 18g)까지는 혈관질환을 32%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맥주도 효과는 있었으나 그 정도는 22%로 와인이 맥주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해 하버드대학의 Rimm등은 사실에서 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Circulation, 2002; 105: 2806). 즉 와인을 선호하는 유럽 팀은 와인의 손을 들어준 반면 정류된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미국 팀은 무승부의

는 환자비율은 신장이식 6%, 간장이식 10%, 폐장이식 12%, 심장이식 14% 등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장기부족해결책은 앞서 언급한 실험실의 줄기세포에 의한 장기제조와, 무균폐지장기이용방법 밖에 없다.

**장기이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고 있다.**

간장이식 받은 남자 Klug는 2002년도 올림픽 눈썰매(snow-boarder)경주에서 동메달의 영광을 얻었다. 34세에 신장병으로 요절한 모차르트가 만일 신장이식을 받아 잠수했다면, 음악세계는 더욱 빛을 났을 것이다. 장기이식 50주년을 맞은 NEJM(2004. 12. 23)는 사실에서 장기이식이 20세기 의학기적의 하나라고 단정했다. 나아가서 21세기 전반엔 첨단실험실모델이 임상에 이용되어, 성공적인 동물장기(무균폐지)개발과 줄기세포기술로 제조한 장기사용으로 장기이식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이식 50년의 진척과 도전과 기약' (Transplantation 50 Years Later- Progress, Challenges, and Promises)라는 논설에서 장기이식의 미

관결을 내린 것이다.

**결론**

- 술과 와인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와인과 다른 술은 하루에 1-2잔 또는 1주에 10-14잔을 마시면 금주자에 비해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뇌경색증)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소량(1주일에 한잔 이하)으로 마시는 것 보다 적당량(1주일에 4-5일)을 마시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알콜 대사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의 양의 약 2/3가 추천된다.
3) 와인이 다른 주류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4) 이 모든 연구결과들은 관찰적 연구(observational study)이며 폐경기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가 그렇듯이 엄격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와인과 술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높은 사람(50세 이상, 흡연자, 당뇨병, 고혈압환자 등)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6) 과음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무조건 술을 끊으라고 충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7) 와인과 술은 1달에 1-2번 대량으로 마시는 것(binge drinking) 보다 소량을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8)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와인과 위스키의 논쟁에서 프랑스의 와인상공회와 미국의 위스키 제조업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은근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7월 초순 어느 무더운 날 우리 부부는 Nova Scotia에 가자고 합의하였다. Nova Scotia는 북미대륙 동북쪽에 위치한 캐나다의 한 주인데 여러 개의 시닉 드라이브(scenic drive)가 있고 특히 Cabot Trail은 북미대륙의 가장 아름다운 시닉 드라이브라 하여 항상 가고 싶었던 곳이다. 5년 전 메인주의 포트랜드에서 Nova Scotia의 주요 항구인 Yarmouth까지 퀘리를 타고 Reach 리조트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차를 안가지고 가 골고루 보지 못하여 장거리 운전여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Day 1: 떠나기 전날 도서관에서 2004년 관 Nova Scotia에 대한 Fodam's 여행 안내서를 빌려왔다. 이 책에서 대중 여행일정을 짜고 유숙할 곳을 예약하였다. 첫 날은 보스턴 외곽 Norfork에 살고 있는 딸네 집에 들었다. 막내딸 Julia는 아들 하나 낳고 다음에 여자 쌍둥이를 낳아서 베이비 시터 하느라 자주 드나들어 눈 감고도 찾아 갈 수 있는 곳이다. 두 살 넘은 쌍둥이는 이제 말을 배워 하버지, 하머니라 부르기도 하고, 내 차를 가리켜 하버지 카라 하여 귀엽기 그지없다.

Day 2: 메인을 지나 국경을 넘어 뉴브런즈윅 서남쪽 아담한 유원지 St. Andrew by the sea에 묵기로 했다. 메인은 지난 2년간 쌍둥이 베이비 시터를 하다가 힘이 들면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어 메인 북쪽 Bar Harbor에 있는 Acadia National Park까지 간 일이 있어 익숙한 길이다. 점심은 Belfast에 있는 Young's Lobster Pond에서 내가 고른 랍스터를 찌는 가마 속에서 받아 이층 Dock에서 돛단 배들을 보면서 먹었다. 랍스터는 메인 해변에 너무 많이 잡히어 옛날에는 비료로 썼거나 죄수에게만 준 주책 못하는 음식이었다는데 지금은 메인주의 영재를 일으키는 No. 1 산업이라 한다.

Day 3: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향해 세인트 앤드류에서 새벽에 출발하니 안개가 자욱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다. 시골길에서 넓은 국도에 진입해도 보이는 것은 안개뿐, 어찌다 우리 차를 추월한 앞차를 따라 가려해도 내 운전 실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오전 10시경 안개가 걷히어 뉴브런즈윅 국도주변의 큰 농장과 농가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섬으로 가는 Confederation 브리지는 길이가 9마일, 12분이 걸린다는 캐나다에서 제일 긴 다리이다. 좁은 다리를 질주할 때 바위가 빗나지 않게 핸들을 꼭 쥐고 운전하였다. 심심치 않게 말을 걸고 했던 아내도 공포의 12분간은 아무 말도 없었다. 섬에 도착하자 느낀 것은 공기가 아주 맑다는 것이다. 이 섬은 초생 달을 닮았으며, 흙이 적갈색인 것도 특징이다. 늦은 오후에 수도 Charlottetown 외곽에 자리 잡은 숙소까지 한 시간 반가량 북쪽 해변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하였다. 전망대에서 차를 세워 망망대해를 바라보니 맑은 바다공기가 온 몸에 스며든다.

Day 4: 쾌청한 날 하루 종일 섬을 관광하기로 했다. 이 섬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동북쪽은 King's, 중앙은 Queen's, 서쪽은 Prince's Country라 부른다. 우리는 더욱 아름답다는 Queen's Country에 위치한 Bella Heron 시닉 드라이브에 도착했다. Heron은 백로과에 속하는 새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왜 가리라고 부른다. 이 시닉 드라이브를 표시하는 표시판에 긴다리, 긴 목을 갖고 있는 파란새가 그려져 있어 학같은 모양의 파랑새가 이 지방에서 식함을 짐작했다. Bella Heron 시닉 드라이브에 유명한 해수욕장이 두개가 있다. 동쪽에 Brachley Beach, 서쪽에 Cavendish Beach가 있는데, 물이 차지 않아서 인기가 있다고 한다. Brachley Beach는 어제 저녁에 가봤기 때문에, 오늘은 Cavendish Beach를 들려 보기로 했다. 태양을 등에 업고 서쪽을 향해서 달릴 때, 왼쪽은 초록색의 초원

왼쪽은 청록색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왼쪽의 타원형의 넓은 초원에는 아름다운 농가가 점점이 박혀있고, 돌돌 말은 건초가 여기 저기 산재하고 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풍경은 평화롭기만 했다. 오른쪽의 청록색의 바다는 수 억년간 걸치어 형성된 모래언덕(Dune)과 붉은 sandstone으로 이루어진 벼랑을 끼고 있다. 청록색의 넓은 바다, 좁은 모래사장 위에 걸쳐있는 붉은색의 벼랑은 Bella Heron 시닉 드라이브의 정수라 하겠다. 캐나다 여류작가 Lucy Maud Montgomery의 소설

길이다. Baddeck에서 시계방향으로 돌기로 했다. 우선 서쪽으로 산간지대를 뚫고 나가 서쪽 해안선을 만나야 한다. 횡단도로의 양쪽은 산, 바위, 울창한 나무, 밑에는 벽수가 계곡을 따라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벽계산간을 질주하는 것이다. 바위가 한국서 흔히 보는 화강암이고 산세가 한국의 금수강산을 접하는 것 같았다. 아내는 소녀 시절 살던 곳과 같다고 친정에 온 기분이라고 무척 좋아한다. 한참을 달린 후 Margance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Margance 강으로 올라가는 연어낚시로

## Cabot Trail에 다녀오다

김시환 (58)



"Anne of Green Gables"의 농가 Green Gables이 Bella Heron 시닉 드라이브와 Cavendish Beach 근방에 있어 이곳을 "Anne's land"라고도 호칭하며, 소설에서 묘사한 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위하여 전 세계의 애독자들이 이곳을 일부러 찾는다고 한다. 저녁에는 Charlottetown 부둣가를 걸을까 했는데 마침 소낙비가 쏟아져, 참 너머로 정박해 있는 큰 배들을 구경하였다.

1864년 캐나다의 여러 Colony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Charlottetown에 모여 연방지방자치제를 제안, 토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서 매년 여름에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Prince Edward Island라는 이름은 빅토리아 영국여왕의 생부였던 Duke of Kent가 Prince 시절 이곳에 오래 와 있었던 연유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Day 5: 오늘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바다 건너 Nova Scotia 동북쪽에 있는 Cape Breton 섬 끝에 있는 Cabot Trail을 구경하기로 했다.

Charlottetown에서 한시간 동쪽에 위치한 Wood Island에서 한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퀘리를 이용했다. Confederation Bridge로 들어갈 때와는 달리 연락선에 몸과 차를 맡겨 한가로웠다. 오늘 유숙할 Baddeck은 Cape Breton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Cabot Trail에서 약 세 시간의 거리이다. 날이 좋고 시야가 시원하고 공기가 맑아 운전하기 좋은 날이다. 아내는 "운전하는데 고달프지 않느냐"고 묻는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오른쪽 눈이 침침해서 운전하는 것을 피하였고 한시간 정도만 운전해도 눈의 피로가 온몸을 괴곤하게 만들었는데, 금년 초 cataract 수술 받은 후 부터는 눈이 천리안처럼 맑아지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어졌다.

Canso Caweway 육교를 건너 Cape Breton 섬의 Port Harting에 도착하였다. Baddeck까지 한시간 반, 해는 중천에 있고 시간이 남아, Baddeck로 직접 가지 않고 서쪽 해변 도로인 Ceilidh (Kay-Lee라 발음) Trail을 달렸다. Ceilidh Trail은 Scotland Highland 사람들이 이주해온 곳이고 그들의 민속음악을 fiddle로 키며 노래와 파티로 가득 찬 Trail이다. 스코트랜드에서 일찍 이 땅에 이주하여 Nova Scotia라는 이름이 뉴-스코트랜드의 라틴어이고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Ceilidh Trail를 반쯤 북상하다가 오른쪽으로 내륙을 횡단하여야만 Baddeck에 갈 수 있어 시골 소로로 들어갔다. 길가에 있는 강같은 긴 호수와 농장이 있다. 이 길에는 우리 차 뿐, 우리는 흘러간 옛 노래를 합창하며 달리었다. Baddeck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 시간, 바닷물 호수인 Bras Lake를 걸어볼까 했는데 피로가 겹쳐 내일을 위하여 일찍 취침하였다.

Day 6 : Cabot Trail를 답사하는 날이다. Cabot Trail은 구경하는 시간을 합쳐 최소 8시간 소요되는 기나긴 drive

유명하다. Margance Forks에서 바로 Margance Harbor가 나오고 여기서 Ceilidh Trail이 Cabot Trail로 연결된다.

Cabot Trail을 북상하면 Cheticamp가 나온다. Cheticamp는 불란서 계 Acadian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으로, 이들은 영국 왕에 충성을 맹세 안한다고 1750년경 강제 추방된 민족들이고 내륙 산림에 숨었거나 또는 멀리 미국 남부 루이지아나에 갔던 사람들이 일부 돌아와 Cheticamp에 정착하였다. 매년 여름 전국에 산재한 Acadian 자선들이 모여 독특한 fiddle 음악축제를 열고 있다. 실제로 Cabot Trail에는 캐나다 국기보다 불란서 국기가 더 많이 나부끼고 있다. Cheticamp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손으로 짠 양탄자와 tapestries 등의 수예품이다. 더 올라가면 Petit Etang 마을에 도착한다. 여기서 Cape Breton 국립공원이 시작하고 여행자 안내센터 직원으로부터 지도에 피크닉 장소가 있는 곳을 표시해서 받았다. 첫 번째 피크닉 장소는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특별히 추천하여 준다. 여행 중 여행자 안내 센터에서 불 일도 보고 친절환 안내를 받아 많은 도움을 받았다.

Cabot Trail은 해발 1,500 피트 높은 후렌치 산정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다. 첫 번째 피크닉 장소 "La Block"에 들어가니 사람이 별로 없었다. Gulf of St. Lawrence 바다를 전망할 때 두 줄은 남나 한 쌍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벼랑 밑으로 내려가 해안선에 떠있는 바위를 건너며 수영을 한다. Trail 속에는 beach가 12개, 등산로가 26개 있어 여러 날을 캠프하면서 수영도 하고 등산을 해야 Cabot Trail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기껏 전망대에서 내려서 경치를 구경했을 뿐이다. 급경사로 올라갈 때는 구름 위로, 내려올 때는 바다 밑 용궁으로 들어가는 환상의 드라이브였다.

Pleasant Bay에 도착하면 내륙을 횡단해서 동쪽 해안으로 가게 된다. 동쪽 해안에서 더 북상하면 Cabot Landing Provincial Park가 있고 이곳이 이태리 태생 John Cabot가 영국 왕 Henry III세의 후원으로 북대서양을 항해하여 1497년에 상륙했던 곳이다. 그런 관계로 Cabot Trail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북상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길은 굴곡이 많고 깊은 계곡과 산이 보이는가 하면 끝없는 바다가 전개된다.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Visitor's Center가 나오고 여기서 Cape Breton Highland 국립공원이 끝난다. 계속 내려오면 Indian Brook이고, 퀘리를 타면 English Town으로 간다는 싸인이 나온다. 잉글리쉬 타운은 북미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며 1597년 불란서 어항으로 설립하였다고 한다. 여기의 해변은 좁아 퀘리로 5분 밖에 안걸리며 차 열대 정도 실을 수 있는 소형의 나룻배가 하루 24시간 운

행한다. Bay를 끼고 Baddeck에 가는 경치는 물 건너 숲과 민의 바닷물이 작열한 태양 광선을 받아 더욱 아름다웠다. 이렇게 많은 절경을 본 Cabot Trail 시닉 드라이브는 예상대로 8시간 걸렸고 늦은 오후야 Baddeck에 도착했다. 저녁식사는 랍스터 서플라이에서 45분간 줄서 기다려 랍스터 디너를 먹었다. 무제한 준다는 Clam와 Mussel도 두 번 이상은 주문 못했다.

Day 7: Nova Scotia 수도인 Halifax 옆에 위치한 Peggy's Cove 등대를 보러 가기로 했다. 오늘도 좋은 날씨. 동쪽 해안선을 따라가는 해변도로 차를 몰았다. 여기는 바다로 흐르는 냇물이 많고 해안에는 수없는 섬들이 펼쳐져 있었다. Dartmouth, Halifax 도시들을 거쳐 Piggy's Cove로 가는 도중 암석이 산재하고 있는 경치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우리 집 정원의 암석과 똑같다고 아내는 나의 아호인 '점암'을 보라고 한다. Piggy's Cove 등대는 빙하시대 얼음에 스치어 매끈하고 넓은 암반 위에 있고 가장 사진을 많이 찍는 등대라고 한다.

오늘의 숙소 Flying Dutch Bed & Breakfast에 오후 6시에나 도착했다. 주인이 추천한 식당에서 haddock 요리를 주문하였는데 생선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요리법과 같은 것에 놀랐다. 이 집은 오션 프런트이고 앞마당에 바다를 향해서 love seat 그네가 있다. 우리는 그네를 타면서 일몰을 구경하였다. 하늘과 구름의 색채는 찬란하였고 오래 인상에 남은 장관이었다.

Day 8: 아침 8시에 식사가 준비된다 하여 시간 맞추어 식탁에 앉았다. 다 이닝 룸은 등대, 돛단배 위의 수채화가 걸려있다. 식사 후 집주인이 Flying Dutch의 연유를 설명하여 주었다. 항해하는 Dutch 선박이 폭풍을 맞아 파손되고 선원이 실종하였는데, 폭풍이 지난 후 파손한 흔적도 찾아내지 못해 지금도 하늘을 항해하고 있다고 믿는 전설에서 따왔다고 한다. 영원을 상징한다 할까. 이 집 주인은 Dutch 후예이고 우리를 배웅하면서 가을에 단풍이 좋다고 다시 오라고 한다. B & B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호텔외의 사무적인 대우와 달리 인정을 느끼게 하여 준다.

New Brunswick Fundy Bay 연안에 있는 Hopewell Cape는 52피트나 올라오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조수 때문에 벼랑이 깎여 "Hopewell Cape"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것은 개선문처럼 조각하였고 어떤 것은 해변에서 높이 솟아오른 정상에 관상수가 자라 "Flower Pot Rock"라고 한다. 저녁에 찾았던 곳이 Florentine Manoz Inn이다. 1860년에 지은 Victorian Mansion을 개조하여 20년간 경영하여온 여인숙이다. 광고에 원한다면 romantic candle light dinner를 제공하며 특히 신혼 여행자를 환영한다고 적혀있었다. 6시에 저녁이 준비되니까 그때까지는 꼭 도착해달라는 당부 받았다. 이 집 다이닝 룸은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다. 우리는 창가에 있는 테이블에 안내받았다. 테이블에는 과일과 와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와인을 드는 순간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다. 손님은 우리 둘.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고, candle light dinner 대접을 받으면서 제2의 허니문을 보내는 기분이었다. 결혼 45주년이 다가오는 제2의 허니문은 청실 홍실 짜여 우리를 생애의 완성되어가는 tapestries를 만들고 있다.

Day 9: 지난 밤 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비가 온다. 오늘은 Fundy Coastal Drive를 거쳐 St. Andrew by the Sea에 다시 가는 날이다. Fundy Coastal Drive는 Fundy National Park가 있고 그 속에 폭포, 호수, 등산로 등 볼 것이 많고 St. John에는 강하고 높은 조수 때문에 바다에서 강으로 역류하는 reversing fall이 있다. Fundy 국립공원을 질주할 때 <다음면에 계속>

# 한국의 Trauma Center는 언제나 될까?

곽 홍(51)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에 Trauma Center에 대하여 글을 투고한 지도 수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아직도 한국에는 이 중앙 Trauma Center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훌륭한 문화국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경제 발전을 자랑하는 굴지의 부강한 나라이고, 의학도 세계에서 우수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과거 15년간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여 왔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무엇이 잘못되어 이 절대로 필요한 구명 응급의료센터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고, 불안과 희망을 가지면서 이 고통되는 점을 여러분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거 한국의 많은 의사들을 초대하여 벨티모어의 Shock Trauma Center에 와서 단기 수련을 받고 돌아가서 현재 여러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장으로, 외과교수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힘으로 한국에서 Trauma Center를 짓는 힘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협회, 외과학회, 응급의료학회 등이 주동이 되어 정부와 협조하여야 큰 결과가 나와 시급히 Trauma Center 설립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일년에 두차례씩 방문하여 이 중앙 Trauma Center를 설립하는데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1989년 서울에 나갔을 때 사실 Trauma Care라는 것을 서울 전대학병원급 대규모 병원의 시설은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91년 5월에 처음으로 당시의 김정수 보사부장관께서 벨티모어의 메릴랜드 의대에 속하고 있는 "R Adams Cowley Shock Trauma Center"를 시찰하러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Trauma Center에 관심이 갖게 된 것입니다. 김정수 장관께서 귀국하시자 그 당시 미국에 동행하였던 유원하 의정구장과 기획하여 소규모의 Trauma Center와 그에 관계된 제도를 위하여 예산을 정부 재경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국에 필요없는 것을 왜 하느냐고 예산 제출한 것을 그냥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김장관의 힘으로 한국에 "119"(미국에서는 911)라는 응급통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1994년 당시 서상목 보사부장관께서 벨티모어와 같은 Shock Trauma Center를 시찰하시러 여러 간부들도 수행하셨습니다. 1995년 서장관은 서울 현재

아산중앙병원 당시 원장 민병철, 부원장 박건춘, 최영무 기획실장 그리고 전 의료간부들과 보사부의 이동모 의정국장, 제 간부들과 또 제 자신이 여러날 같이 상의 기획하여 이 병원에 180병상의 Trauma Center 건물 건축하여 중앙 Trauma Center로 하자는 기획이 다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서장관께서 얼마 안된 후 장관직을 떠나시게 되어 이 기획이 무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후 1999년 5월에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다시 벨티모어의 같은 Shock Trauma Center에 시찰하러 오실 예정이었으나 시찰 3일전에 갑자기 취소되어 못오셨습니다.

얼마전부터 생각하여 오던 즉 한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것을 정부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1992년 10월에 국회 보사상임위원장이시던 주양자 의원에게 이런 법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는데 1993년초에 아주 간단한 응급의료법률이 국회에서 통과하였으나 별로 실용적 가치는 없었습니다.

1999년 6월에 차홍봉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권고되어 여러 간부들과 상담하며 참고 법률도 제공하여 이 법이 성문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장관님의 부탁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수정 첨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훌륭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작성된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 되어야 할 "응급의료기금"이 Trauma Center 운영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2001년 7월에 당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 계셨던 김홍신의원께 역설하였습니다. 김의원님의 적극적 찬성으로 법 작성에 상의도 하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약 2-3개월 후에 법 작성 건이 김태홍 의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의원님과 보좌관 허윤정의 노력으로 이 법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법 통과를 도와주기 위하여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한국의 응급의료제도의 필요성과 미국의 Trauma Center의 현실을 강의도 하였습니다. 이 법이 2002년 2월에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으로서 한국교통위반으로 수입되는 전 범칙금의 20%가 매년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2003년 7월에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여명의 수행원이 벨티모어의 같은 Shock Trauma Center에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김 장관께서는 MIEMSS (Maryland Institut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을 방문 시찰하셨습니다. 이 MIEMSS는 Trauma

Center 뿐 아니라 전 중앙의료통신망, 전 환자수송제도, 간호사 응급구조사 교육훈련, 미국의 부상문제 연구, 부활 병원 급성중독치료 등 또 재정과 법무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김 장관께서는 이 기관 소장, Trauma Center 병원장, 의사교육부장 그리고 메릴랜드주의 보건복지장관을 직접 접견 상의하였습니다. 교육부장에게 한국에서 외과외사를 보내면 6개월씩 수련시켜 보내겠다는 약속도 받은 것입니다. 김 장관께서는 이 MIEMSS 기관의 제도가 훌륭하며 한국에도 이 제도와 같은 Trauma Center 제도를 갖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과거 한국의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외국에 Trauma Center를 시찰하시러 나오신 것은 벨티모어의 같은 Shock Trauma Center 뿐이라고 믿습니다. 복지부 직원들은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에도 가서 시찰하고 온 것 같습니다. 김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Trauma Center 설치에 많은 노력과 준비기획을 하시며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기획부처도 생기고 그간 많은 진전과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김장관의 말씀에 Trauma Center 건축예산도 국회에 제출되어있고 건축할 장소도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서울시에서 구입하고 선택한 장소에 800병상 NMC와 150병상의 Trauma Center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전에 결정한 장소가 그린벨트라 하여 서울시에서 새로 장소 여섯 곳을 선정하였으나 어떤 곳인지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년간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있으나, Trauma Center의 설치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개(아직 미정), 면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05개가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응급의료기금이 약 500억원이 매년 나오는 것은 중앙의료센터가 아직 없음으로 면역지역센터의 시설 향상 또 건립하는데 분배되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면역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아주 심한 중상을 받고 급속히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을 못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주일 오전중에 급히 수술받아야 할 환자가 가도 수술실 빈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의사들의 퇴근 시간후나 주말에 이런 환자가 가면 잘 훈련된 외과외사가 병원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50% 이상의 외

상환자를 예방할 수 있는데 사망하고 있다 합니다(선진국에서는 10%가 사망).

과거 여러번 제가 말한것 같이 "황금의 한 시간"이라는 말도 크게 다쳐 샅크에 빠져있는 환자는 다친 그 시간부터 수술실에 들어가 한시간 내에 수술을 받게되면 생존률이 90% 정도 되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큰 사망률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차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미국과 일본 보다 3~4배나 되고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는 약 4백만대가 있는데 사망자는 일년에 8천에서 9천명이 되며, 일본의 차량수는 8천만대인데 사망자는 약 1만명이라 합니다. 한국에서 차 사고에 의한 부상자는 약 30만명이 되고, 이중 소아는 약 3만명이 됩니다. 또 소아 차 사고 사망률은 세계에서 제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여러번 말한 것 같이 사고로 다친 환자가 사는가 죽는가는 의과 기술뿐 아니라 정부에서 얼마나 좋은 시설과 제도를 만들어 주는데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15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Trauma Center가 없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과거 제가 출판한 글에 이 이유를 몇 번 썼습니다.

제 생각중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너무나 자주 바뀌고 또 너무나 관료적인 것입니다. 또 전임 장관이 기획 작성한 것이 후임 장관시대 계속 진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년간 여러 장관님들에게 민간단체에서 Trauma Center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이 분들로 구성된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정부와 협력상의하여 Trauma Center 건립에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에 와서 돈이 부족하다니, 인재가 없다든지, 민간의 관심이 없다고 하는 이유들은 하등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전염병이 생겨 환자가 천여명이 죽었다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고 곧 처리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 세계적인 문제인 언제 테러사건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공포에 사는 사회에서 신속하게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이럴때 Trauma Center가 절실히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의학계에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사협회, 외과협회 또 응급의료학회 등 다 같이 협력하시고 주동이 되어 정부에 건의하여 Trauma Center 설립에 힘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면에서 계속>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물 속을 헤쳐 나가는 것 같은 스틸이 있었다. St. John에 도착하니 비가 그쳐 reversing fall을 관광할까 했지만 하루 두 번 벌어지는 때를 맞추려면 시간을 빼길 것 같아 그만두고 St. Andrew by the Sea에 도착한 것은 이른 오후였다. 시가는 물로 씻은 듯이 깨끗하고 상쾌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해변 로인 Water Street를 산책하며 일몰을 감상했다.

Day 10: 날씨가 흐린 아침 캐나다 국경을 지나 저녁에 딸의 집에 도착했다. 이번 9일 간의 여행 중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정보망에서 완전히 차단된 채 대자연의 정기만을 접하였던 것이다.

Day 11: 아이들이 깨기 전 새벽에 나와 내 집을 향해 달렸다. 미국 땅에 들어와서는 아내가 주로 운전하였다. 캐나다에서는 미지의 땅이고 모험의

운전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운전대를 내주지 않았다. 이를 전부터는 비가 계속 내려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하였다. 커네티컷 주의 메리트 파크 웨

이를 지날 때 Fundy 국립공원 산간을 지날 때처럼 폭우를 만났다. 그 때는 차가 없어 우중 운전의 스틸이 있었지만 오늘은 차들이 앞 뒤로 있어 위험천만이었다. 모든 차가 속력을 줄여도 겁이 났다. 아내에게 운전대를 내 준 것이 후회가 되었다. 즐기차게 쏟아지던 비가 차츰 뜰해지더니 집에 왔을 때는 완전히 그쳤다. 2,800마일의 긴 자동차여행 이었다. 여행은 돌아갈 집이 있어야 즐겁다는 말대로, 내 집에 들어오니 마음의 평온이 되돌아 왔다. 여행중 경험했던 절경을 회상할 때마다 즐겁기만 했다. Cabot Trail은 한번 보면 또다시 방문하는 곳 이라는데 기회가 다시 온다면 시간을 넉넉히 잡아 두 세 개의 등산 Trail을 가보리라.





# 실상과 허상



이원택(71)

## 옥상옥

칠원 중순, 한창 짙통더위 통에도 한국왕복 비행기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여행을 통해 중국 동남부의 상해 항주 소주를 둘러 고국에 다녀오는 방법을 택했다.

우선 상해의 분위기는 동양의 파리가 아니라 동양의 런던이라 해야 제격일 것으로 런던이 테임즈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상해는 황포강을 끼고 자리온 도시로 두 강의 유람선을 타본 사람이면 금방 유사점을 느낄수 있다.

런던이 유럽에서의 건축문화의 중심인 것처럼 상해 건축물의 다양함이나 우아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특히 상해지방 건축물의 백미는 크고 작은 건물들의 옥상에 마치 상냥관을 올려 놓은 듯 자그마한 방 하나를 사뿐히 올려놓아 멋을 돋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미관상의 이유로만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쳤으나 상해 근처의 교외나 농촌에서의 같은 건축양식을 보고 모르긴 몰라도 몇 이상의 실용적인 이유가 있지않나 생각해오게 되었다.

양자강 하구의 장수성이나 저장성 일대에는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늪지대가 많은데, 이 지방의 가옥들은 천편 일률적으로 네모반듯한 세멘트로 만든 서양식 집들로서 못사는 사람은 3층, 좀 낫게 사는 사람은 4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막상 집안의 문화시설은 형편없는 편이어서 에어컨은 엄두도 못낼 지경인데 1층은 습기와 모기를 비롯한 물 것 때문에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창고로 쓰이고 2층은 주방시설과 식당이 있으며 3,4층에 침실이 있는데 거의 모든 집들이 전에 말한 성냥갑 모양의 옥상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서너평 밖에 안되는 방의 용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세히 보면 인가가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각 벽마다 창이 네 개씩 있고, 건물이 밀착해 있으면 옆 집하고 마주 보는 벽에는 창이 없으며, 도시쪽으로 들어 올수록 창이 없는 그냥 장식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좀더 자세히 관찰하면 어떤 집에는 나무로 만든 평상(침대)이 놓여 있고 어느 집에는 소파만 달랑 창문을 향해 놓여있고 또 아예 가구없이 허성쓰레기로 차 있는 집들도 있다.

이만하면 현명하진 독자들께서는 이미 그 옥상옥의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셨으리라 믿으나 한층 더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 나무침대가 놓여있는 집은 아직도 숨은 낙을 즐길수 있는 젊은 부부가, 소파가 놓여있을 집은 인생의 황혼에서 밤에는 그저 소파에 걸터 앉아 바람이나 쏘이거나 떠오르는 달을 관조하는 노인부부가 그리고 잡동사니로 가득찬 옥상옥에서는 아마도 과부나 홀아비가 혼자 살고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중고교 시절, 여름방학때가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원두막에서 자곤 했는데 이때 원두막을 높게 세울수록 시원한 맛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물론 모기나 하루살이들도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기장이 필요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다만 그때는 너무 어렸는지 너무 순진했는지는 몰라도 또 다른 원두막의 용도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말이다.

## 빌려온 경치

중국여행을 하다보면 과연 중국이 대국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물론이겠으나 한편으로 중국사람들 만큼 허풍을 떠는 민족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에서부터 적벽대전 때 조조의 백만대군이 하루아침에 전멸했다던가 또 관운장의 청룡은 월도가 3천근이나 나간다는 것은 fiction이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지난번 나는 중국 제일의 미향이라고 해서 불원천리 향주를 다녀오고 저옥이 실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향주에 있는 모든 미녀들이 상해로 팔려갔는지, 아니면 공산당들이 미녀란 미녀는 모두 도리를 해 갔는지, 향주시내는 밭이 달도록 돌아 다니면서 삼지사방 눈이 빠지게 두리번 거려도 좀체로 예쁜 아가씨들은 볼 수가 없었다. 할일없이 상해로 다시 돌아오는 차간에서 본 책자에서 춘추전국시대 중국 제일의 미인으로 뽑혀던 서시의 고향이 향주라는 것을 읽고, 한사람의 미녀가 배출되었다고 도시 전체를 미향이라 떠벌이는 중국사람들 허풍에 다시 한번 넘어간 것을 실감했다.

상해 북쪽에 있는 소주에서는 유네스코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바 있는 '옛날 정원'들을 둘러보았는데 요상한 돌들 몇 개 갈다놓고 다섯 개의 산봉우리라고 명명하는가 하면 (여기 비하면 도봉산의 오봉은 히말리야 산맥일), 조그만 연못에 배를 띄울수가 없으니까, 아예 불박이 배모양의 정자를 지어 놓고 마치 큰 호수를 헤쳐나가는 기분을 내는 것까지의 좋았는데, 탁트인 벌판을 바라보고 들어선 누각의 이름을 오희백화가 무르익는 향기를 맡아보는 취향정인가 무엇인가 했으나,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서 맡아볼 수 있는 향기는 수천년을 비료로 사용했던 인분냄새가 고작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아무튼, 중국사람들의 'borrowed view'는 한마디로 마스터베이션의 극치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누구나 자위행위를 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은 당연하며 이왕이면 최고의 미녀 최상의 미남을 그린다고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시 사람의 행복에는 실제건 허상이건 'perception'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제 눈에 안경이면 그만이지 남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느껴줄 수는 없지 않는가?

# 진달래

여준구(70)

이른봄 따스한 햇살이 스러지는 찬바람 해집어 활짝피운 진분홍 미색이여

님의 화사한 웃음처럼 이슬먹은 붉은 입술이 온통 뒷산을 덮었구나

가는 바람에 설레이는 꽃잎들이 질계 불붙은 언덕을 흔들여 살포시 고개드는 흥분이여

님의 포근한 고운 눈빛처럼 해맑게 파이란 저 하늘이 온통 그대를 한아름 안았구나



# 김옥균과 갑오정변

김승업(61)

내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의 한 사람이 김옥균(金玉均)이다. 김옥균은 1884년 12월 4일(고종 21년) 갑오정변(甲午政變)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개혁을 하려다가 3일만에 실패하여 삼일천하가 되어버린 개화파 거사의 중심인물이다.

1876년(고종 13년) 이후로 조선은 길고 긴 쇠국시대를 끝내고 일본과 서양 여러나라의 압력에 의해서 개국을 하였고 중국의 청(淸)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던 것을 버리고 독립자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오랜 봉건체제를 탈피하고 스스로 근대화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나 봉건주의의 잔재가 크게 남아서 결국에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1882년(고종 19년) 무위영과 장어영의 군인들이 배급주는 쌀의 양이 부족하고 그속에 돌이 많이 섞여 있는데 본격하고 그동안의 처우에 불만이 있던 중이라 그만 폭발이 되어서 난동을 일으켰고 이에 이태원, 왕십리에 사는 빈민층이 합류하여서 커다란 난리가 일어났으니 이것이 임오군란(壬午軍亂)이다. 이들의 증오의 대상은 민생(閔妃)과 그녀가 들여든 민씨 일족이었고 또한 일본놈들 이었다.

1876년(고종 13년) 일본과 체결된 강화조약은 조선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으로서 일본인이면 누구에게나 치외법권이 주어지고 무세금으로 국제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주로 쌀이고 보니 쌀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쌀 값이 두어배로 뛰고 민생이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악의 원인이 일본놈들이라 해서 난동하는 군민이 일본대사관을 습격하고 이것을 불태워 버렸다. 일본공사와 공사관원들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창덕궁으로 난입한 국민이 민비를 잡아죽이려 하였으나 민비는 다행하게 벗어나서 멀리 충청도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조선의 난리를 듣고 청나라에서는 사천명의 군대를 배에 태워서 보내고 서울에 입성하여 난리를 해결하였다. 이에 더하여 청나라와 손을 잡은 민비의 요청에 따라서 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하였다. 대원군은 이후 3년동안 북경 부근의 보정(保定)이란 곳에서 귀양살이를 한 것이다.

1882년 10월 조선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대사관 습격을 사죄하는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그 단장은 박영효(朴泳孝)이며 그는 개화파로서 김옥균의 동지였다. 박영효 이외에 김영익, 김옥균, 서광범 등의 젊은 관민 15명으로 구성된 이 사절단은 일본 정부의 환영을 받고 명치유신으로 시작하여 15년 사이에 교육, 산업, 정치 각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일본의 실상을 보고 느낀바가 많았다. 이들 사절단은 조선도 일본처럼 단시간에 근대화를 이룩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김옥균은 일본 시찰에 다녀온 1882년 이후 2년간 동지들과 쿠데타를 하겠다고 계획하였고 1884년 12월 4일 이것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마침 동지의 한 사람인 홍영식(洪英植)이 총재로 있던 우정국 신축 축하회가 열리게 되어서 각국 공사, 영사 그리고 민씨 일가 이하 정부고관이 모두 참석하게 되어 있었다.

쿠데타 당일 저녁 6시 축하객이 모두 모여서 축하파티가 시작되자 동지의 한 사람이 동네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이야" 소리에 손님들이 모두 우왕좌왕

하는 광경이 있었다. 우정국에서 나온 김옥균과 박영효는 창덕궁에 도착하여 왕을 알현하고 "사대당과 청국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라고 거짓 보고하였다. 이어서 쿠데타를 지원하는 일본군이 경호하는 경복궁으로 왕과 왕비가 피신하고 개화파 동지들은 민태호, 민영목 등 민씨 집안과 조영하, 윤태준, 한규직 등의 친청 수구파를 암살하였다.

쿠데타에 성공한 개화파는 다음날 아침(12월 5일) 새정부를 조직하였다. 좌의정에 홍영식, 재무책임에 김옥균, 군사책임에 박영효, 교통통신책임에 서광범, 군사부책임에 서재필 등 개화파로만 구성된 새정부였다. 그리고 14조목의 새정부의 정책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 초안은 뒤에 왕명으로 환수되어 폐기되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옥균이 남긴 일기에 의하면 제 1조가 '청나라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킬것.' 그 밖에도 신분제도 문벌 폐지, 인재등용, 토지법 세금법 개정, 탐관오리 처벌, 경찰제도 확립, 억울한 죄인의 재심과 석방 등이 있어서 김옥균의 확고한 조국 근대화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김옥균의 14조목 정강을 보노라면, 이조 6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회 부패상과 그 서민들의 빈곤과 고난이 21세기의 지금 한국 사회에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그에 대한 놀라움과 절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쿠데타 이틀 뒤인 12월 6일 오후 3시에 반대당인 수구파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 군사 1천3백명이 돈화문으로 들어와서 창덕궁을 공격하였다. 일본군과 개화파 동지들이 응전하였으나 수가 모자라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고종을 모시고 강화도로 가서 정세전환을 생각한 김옥균이 이 제안을 하자 고종은 절대로 안된다고 거절하였다. 하는 수 없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개화파 인사 아홉명은 철수하는 일본공사와 일본군대를 따라서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 다음날 12월 7일 일본공사, 일본 교민 3백명과 함께 인천으로 달아나고, 이어서 일본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가운데 박영효, 서재필 등은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김옥균은 일본에서 이곳저곳으로 유배생활을 하였다. 김옥균은 조선 근대화의 꿈을 버리지 않고 청나라 실력자 이홍장과 회담하고자 상하이에 건너 간 것이 1894년 3월 27일 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미국 조계 철마로(鐵馬路)에 위치한 동화양행(東和洋行)이란 여관에서 자기 자신의 일행의 한 사람인 홍종우(洪鍾宇)라는 비열한 암살자의 칼에 맞아 죽었다. 홍종우는 민비와 민씨 일족이 모의하여 보낸 암살자로서 귀국하여 큰 상을 받고 어느 고을 수령이 되었다고 한다.

갑오정변이 실패한 직후 창덕궁에 환궁한 민비는 개화파 동지들을 살살이 수색하여 잡아 넣고 모두 죽여버렸다. 그뿐 아니라 개화파 사람의 일가 삼등친(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녀)를 모두 죽여버렸으니 민비란 여자의 그 무식하고 격하고 무자비하고 무서운 성격이 나타나 있다. 요즈음 명성황후라 하여 민비를 우상화하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 여담이지만 서재필 박사의 부인과 갓난 아들이 이때 처형되었다고 한다. 서재필 박사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십여일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고 이국의 땅을 방황하던 것을 상상하면 그 참담한 심경에 끝없는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은퇴후에도 나스닥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 지수가 오천백에서 천육백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거품 시장의 희생자가 되었다.

은퇴후 한 이십년은 여유있게 쓰겠다는 셈을 하고 있었는데 가난뱅이가 된 것이다. 나는 동작이 느리고 재리에 밝지 못한지라 우물쭈물 하는 동안 이제는 바닥이겠지 하면 또 내려가는 톱질을 수십번 당하고 나니 휴지가 된 주식도 많다.

기왕에 돈은 잃었으니 스트레스나 받지 말자하고 눈과 귀를 막고 공수래 공수러 외이며 지냈다. 꽃이 변명을 하자면 마침 주식이 곤두박질을 시작할 때 나는 알과 싸우느라곤 돈이야 어찌되든 하면서 챙기지를 않았다.

은퇴후에 쓰러던 재산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질 때 인생무상을 읊고 있었다. 나는 연간 국민소득이 이백불 밖에 안되던 한국에서도 두부와 콩나물을 부식으로 잘 살아 남았고 지금은 내 집, 내 차에 국가에서 주는 노인혜택만해도 '중진국의 국민소득보다 나은데 무엇을 걱정하라' 하는 뱃심도 생겼다.

수도자는 먼저 가난해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도 늦게서야 도를 깨우칠 기회가 왔다보다라고 생각도 했고, 부자가 천담에 들어가는 것은 너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기 보다 어렵다는 성경말씀도 있어 나도 천담가기가 좀 쉬워지는가보다 하고 혼자서 위로도 했다.

가난해야 겸손해지고 집착에서 해방되며 주머니가 비어야 마음을 비우기도 쉽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재산을 많이 펼쳐 놓을수록 그 관리가 복잡하여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에 대한 집착이 나를 속박하며 걸음로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보이니 실은 내가 재산의 노예가 되어 바쁘게 돌아 다니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나를 잃는다.

재산은 내가 사는 동안 잠시 보관하는 것이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집 없는 거지가 불난 집 앞에 서서 자기 아들보고 '우리는 집에 불이나 타버릴 염려가 없으니 그게 다 내덕이다'라고 했다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내 처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 평생 돈만 굶어 모으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다.

욕망이라는 차에 일단 올라타면 가속이 붙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달린다 어느날 갑자기 절벽 밑으로 굴러 세상을 하직하게 된다.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속은 텔레비전 등 미디어를 통해 들어온 속된 지식과 의미도 없는 가십과 사회상 등으로 가득찬 사람의 참된 길을 보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기도나 참선을 통하여 마음을 비우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요약하면 가난하고 마음이 단순해야 심령도 가난해지고 진실을 보기가 쉽다는 이야기다.

현대의 가난을 원시 농경시대의 가난처럼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북한에서처럼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 전체가 가난하여 기아로 폐죽음을 당하는 국가적 단위의 가난도 있고, 수도를 위해 자진해서 택하는 가난도 있으며, 애를 써도 운이나 재능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있고 타락 방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가난한 사람도 있다.

빛보증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남에게 사기를 당하여, 혹은 도박으로 망한 사람도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출몰 잘 타거나 투자에 재능이 있어 거부가 되기도 하고 골프만 잘 쳐도 거부가 되니 자본주의 경제는 요지경 속이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고 상대적 빈곤이라면 나

보다 더 가진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다는 원리이니 남과 비교를 말고 자기가 진 것에 만족할 줄만 안다면 가난에서 해방 될 것이다.

그래서 知足而富라는 말이 생겼고 성현들은 예로부터 행복과 부는 별 관계가 없다고 가르쳐 왔다.

가난을 미화한 법정 스님의 글이 좋은 위로가 되었지만 문제도 있다.

첫째로, 승려나 신부처럼 부양 가족이 없는 분들이 무

소유로 돌아가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족이

떨린 중생들

에게는 그림의 떡이

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이 없이 혼자서

원시적 농법으로

먹을 것과 빨감들을 자

급자족하고 전

기 수도 전화 등

문명의 이기없이 살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의

살림도 농사를 질 땅과 물과 땀

감이 자라는 산란이 필요하다.

월 돈의 David Thoreau도 친구인 Emerson이 수백 에이커의 땅을 무료로 빌려 주었기에 자연을 즐기며 혼자 살 수 있었다. 따라서 세계 육십억 인구의 몇백분의 일이나 그만한 땅덩어리를 얻어 그와 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둘째로, 삼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북한에서처럼 주위에서 죽어 나가는 관국에 개인의 청빈낙도가 가능할런지 의심스럽다.

인구 폭발로 늘어나는 식구들 먹이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나라의 기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길러야 하고 기업가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머리를 짜내야 하며 전문가들은 새 지식과 정보를 계속 흡수하고 새 기술개발에 불철주야 몰두하여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가난속에서도 행복하게 살라는 말은 현대에 맞지 않는 점도 있는 것 같지만 말은 말뉘에 있는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난 찬미의 참 뜻은 모두 가난해지라는 뜻이 아니고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의 능력대로 부를 쌓되 자기가 쌓은 부와 관계없이 검소하게 살고 부는 베풀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껴서 쓰고 남는 것은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으로 가난을 해석하는 것이다.

내 집이 내가 살기에 필요한 크기의

공간인가, 그리고 내가 필요이상의 큰 차를 굴려 대기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악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내 옷장에 앞으로 입지도 않을 옷들이 좁이나 먹고 있지 않는지 살펴 복을 아끼라는 것이다.

내 뉘보다 많은 물이나 전기나 휘발유등의 에너지를 쓰면서 쓰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거나 감사한 느낌은 있어야 인정이라 할 수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 한 사

람당 일년에

천백큐빅미터의 물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백 큐빅 미터를

나머지

중동국가에서는

일인당 오

십큐빅미터의 물을 쓴다

고 하며 아프리

카 도처에서는 유엔

원조로 보낸 급수차

앞에 수백명이 줄을 서서 겨우 식

수를 얻어 갈증만 면하고 산다.

같은 지구에 사는 인간으로 미국사람과 기타 선진국 잘 사는 사람들은 남의 뉘 몇배 내지 몇십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어야 한다.

우리는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이론에 세뇌를 당했고 소비가 미덕인줄만 알고 있으며 남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경제이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같이 의사공부만 한 사람도 자본주의 공산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아담 스미스, 칼 막스, 케인즈 등등 말이 나오면 한마디 거들 줄 알지만 그 많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밥풀 한 알이라도 흘리면 주어서 먹도록 어른들께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다. 과소비는 제한된 자원의 고갈과 오염을 재촉하여 인류의 생존에 닥쳐올 위기를 모두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미루고만 있으니 아마 너무 늦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인류는 밀려가고 말 것 같다.

만신창이 지구를 인계 받아 살 사람은 바로 우리의 자식 손자들이다.

Homo Sapiens, sapiens라는 현대인이 출현한 이래 수만년간 잘 살아온 인류 역사를 단 수십년만에 파괴하고 떠날 우리 세대는 길이 저주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

소비를 더 할수록 잘 돌아가는 경제



의 악순환은 점점 더 많은 소비를 필요로 하니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한 것과 같다.

이 경제 이론을 따르면 지구의 자원이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는 끝 간데까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설마하면서 때로는 타성에 젖어 때로는 두려워 일부러 외면한채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 내가 어려서 보던 그렇게 많은 별이 총총하던 밤 하늘을 잃은지 오래고, 검푸른 가을 하늘도 이제는 없다.

천렵을 가서는 마실 수 있었던 깨끗한 개울 물도 없어졌고 지천스럽게 땅던 개구리, 잠자리 논우렁 모두 보기가 힘들어져 간다.

시장에 나오는 동태나 조기 등 해산물을 보면 내가 어려서 먹던 것들과는 맛이나 크기가 비교도 안된다.

병에 든 물을 살 때마다 나는 우울하다.

허영이나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남보다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뉘과 우리 후손의 뉘를 쓰는 것이니 욕심쟁이이고 도의적으로 착취행위다.

남들이 간다니 나도 간다고 따라 나서는 관광, 많이 간 것을 훈장처럼 장식하려고 가는 관광, 주로 쇼핑하는 재미로 가는 돈 쓰기 관광, 가서는 주로 즐기고있다 저녁에는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찾는 관광 등 관광에도 과소비가 많다.

부패 식당에 가더라도 먹을만큼 집어와서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이 적도록 마음을 쓰는 그런 작은 일이 소중한 것이다. 내가 돈을 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생각하는 그 마음 씀이 문제다.

마음이 울적하다고 또는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귀를 해칠 소란한 음악에 혼탁한 공기속에서 술을 마시며 요란스레 춤을 추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대화하며 명상속에 산책을 한다든가 새벽 일찍 단공기를 가슴 가득 마시며 떠오르는 해맛이를 간다든가 하면 돈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 진다.

David Thoreau의 말이 생각난다.

"The man is richest whose pleasures are cheapest"

일본 군국주의 치하에서 이차대전을 치루었고 육이오 동란의 참극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가난을 겪어 보았고 그 경험을 값있는 경험이라고 여기지만 자신해서 가난을 택할 만한 용기는 없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의 거품시장 덕분으로 낭비할만한 재력이 내게서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과 검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소비로 인한 오염과 파괴로부터 자연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들에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남겨 주고 싶은 생각은 폭락한 주식이 회복되어 만일 내가 다시 여유가 생겨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인구의 5% 밖에 안되는 미국이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사분지 일을 쓰고 있다.

그것을 유지하자니 이라에서 무력을 휘둘러야 하고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이자는 Kyoto Protocol에서 빠져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무슨 방법으로 미국이 199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를 2010년까지 줄일 수 있을지 부시대통령도 생각다 못해 풀러난 것이다.

전기 휘발유 등 계속해서 쓰면서 이란전쟁이나 교토조약 탈퇴를 입으로 반대하는 것은 위선일 수 있다.

주식의 거품이 터지고 가난해진 덕분에 반성과 회개도 하며 인생을 좀더 관조하는 기회를 얻었으니 인간은 전화위복을 아는 영리한 동물이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l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 여름을 찾아간 겨울 나그네

-대양주 여행기-



잠시 동안 이나마 내가 처하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행이고 동시에 여행의 묘미라면 아예 지금 처하고 있는 흑한의 시카고에서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는 플로리다나 지중해 연안 보다는 여름이 한창인 남반부로 가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난 1월 20일 호주와 뉴질랜드(NZ)가 있는 대양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처음 도착한 곳은 호주의 수도 Canberra 이다. Sydney와 Melbourne의 중간지점이 되는 내륙에 1913년에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이 도시에 친지의 영접을 받으며 첫 발을 내리는 순간부터 한여름의 햇살을 따갑게 느낀다.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 곳은 기암절벽이 있어 풍치경관을 이룬 시드니나 멜본과는 달리 인간의 재능으로 창조해낸 비범한 대작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는 빈 벌판에 새로운 환경을 꾸며낸 도시이다. 시카고 출신의 W.B. Griffin이라는 건축가의 설계가 국제경쟁에서 선정되어 건설된 도시라고 한다. 도시를 흐르는 강을 살려서 시가 중심지역으로 다양하게 뻗어나간 호수를 만들었고 수목으로 가려진 여유 있는 주택가가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자연 속에 파묻힌 전원풍경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역사와 문화 문명을 담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과 국립 호주대학을 위시한 교육기관 정부청사 상가 등 도시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눈을 끄는 것은 방사형으로 뻗어난 도로의 시발점에 서있는 국회의사당이다. 1980년에 착공하여 1988년에 문을 열었다는 Giurgola의 이 작품은 Griffin의 대 시도를 완성시켜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이 거대한 건물은 그 외형부터가 수려하다. 건물 중간에 "스푸트닉" 같이 생긴 깃대 탑이 있는 의사당 옥상까지 펼쳐진 잔디밭은 상원과 하원의원의 머리위로 시민들이 밟고 거닐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이 마려운 공간이라 한다. 어마어마한 공회당 상원과 하원의회의실과 사무실을 수용한 이 건물을 들어가 보면 창 넘어 가까이에 나무가 있고 정원이 있다. 자연과 격리된 도시공간을 여기서는 느끼지 못한다. 자연과 환경과의 친화를 최대한으로 살린 설계라 한다. 건물 곳곳을 차지한 "에브리저니" 토착예술은 이색적인 눈길을 끌었고 그 후 어디를 가나 독특한 패턴을 가진 이 작품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상을 하게 하였다.

전물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여행에서 시드니 항만 한바퀴 부릿지에서 멀지 않은데 자리잡은 오페라 하우스를 빼놓을 수 없다. 스웨덴에서 가져온 백만개가 넘는 세라믹 타일로 만든 조개껍질 혹은 배의 돛 같이 생긴 지붕을 한 이색적인 이 음악의 전당은 다섯 개의 공연실과 옥외 연주공간을 갖춘 화려하고 예술적인 걸작품이다. 1955년에 덴마크의 건축가 J. Utzon에 의해 설계되고 14년 후인 1973에야 완공이 된 이 집은 외관은 물론이고 연주실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장실의 세수대까지 예술감각이 넘쳐흐르는 색깔 구도 방대한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아쉽게도 이 홀에서 연주하는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고 와서 더 미련을 가지게 된다. 꼭 다시 찾고 싶은 곳이다.

사흘의 캔베라 관람을 마친 우리의 일정은 NZ의 북섬과 남섬을 일주일동

## 강수상(53)

안 구경하는 일이었다. NZ의 최대 도시이고 수도인 오클랜드(Auckland)에 내려 아메리칸 투어가 짠 프로그램에 따라 버스로 여러 곳을 돌아 다녔는데 그 하이라이프는 북섬에서는 지열분출로 유명한 로토루아(Rotorua) 지역의 관광이었다. 가는 곳마다 지열을 뿜어내는 게이저(geyser)와 유화수소의 냄새로 젖어있는 "Sulfur City"라고 이름지어진 곳이다. 유황천에서 나온 물로 채워진 폴리네이션 야외 SPA에서 호수위로 피어오르는 물연기를 내다보며 몸을 풀고 저녁에는 이곳 원주민인 마오리(Maori) 족 민속 쇼를 보면서 그들의 요리법으로 만든 "항이" 디너를 먹는 재미가 일품이었다. 이 근처에 있는 타우포(Taupo) 호와 로토루아 호의 솜어와 연어 낚시는 대단한 인기를 가진 것으로 알고 찾아갔는데 여행일정에 없어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이곳 농업의 주종인 28종의 양과 양치기에 큰 역할을 하는 개들의 장기와 양모 깎기의 전시를 관람하는 재미가 인상적이었다.

남섬의 주요 코스는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에서 NZ 엘파인의 만년설로 덮인 산령을 바라보며 구름과 협곡을 거쳐 남서쪽으로 330 마일 떨어진 퀸스타운(Queenstown)까지 가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산령을 넘어 종착지인 밀포드 사운드(Milford Sound, 좁은海峡)의 절경을 보고 돌아와 퀸스타운에서 다시 하룻밤을 더 보내고 돌아오는 것 이었다. 이 지역은 북섬과는 달리 건조한 고산과 구릉지대로 양 말 사슴 같은 목축업이 주종이고 최근에 와서 와인생산을 위한 포도농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물과 풀이 정결한 NZ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는 불과 4백만이 못되는데 4천 7백만의 양을 기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퀸스타운에 가까워지면서 산세는 점점 험해지고 인가도 가축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테카포(Tekapo)호에 이르러서야 조그만 촌락이 나타나고 호수의 물색이 아름답다. 빙하가 바위가루와 섞여 부유물이 만들어져 생겼을 것이라는 젖빛 당근 청록색(milky-turquoise)의 물색은 천하일색(天下-色)으로 알려져 있다. 퀸스타운에서 서쪽으로 180마일 떨어진 밀포드 사운드까지는 호수와 협곡으로 이어진 첩첩산중이다. 호수가 아름답고 산세가 수려하다. 그러나 이 지역 경관의 극치는 단연 종착지인 밀포드 사운드이다. 장장 18마일이나 되는 수로 양쪽이 4천 피트가 넘는 암벽으로 이어졌고 미터 피크(Mitre Peak)가 5660피트로 그 정상이다. 520피트 높이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져 내리는 보웬 폭포(Bowen Falls)도 경관이다. 그 옛날 빙하가 빠져나가 생겼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된 이곳은 그 칭송의 말이 모자라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대단한 절경이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3일은 시드니 시내와 그 주변의 명소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시외관광으로는 시드니에서 45마일 떨어진 블루 마운틴 산령(Blue Mountains)이 가장 훌륭한 코스였다고 생각된다. 원주민이 만난 코어 살아왔다는 이 지역에 호주에 첫 발을 들여놓은 1788년부터 25년이 지난 1813년에야 백인들이 이곳에 들어왔다고 한다. 지금은 관광과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한때는 석탄 발굴로 번성했던 곳이다. 195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샌드스톤(砂巖)절벽과 협곡 분지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호주가 원산지인 유카립투스

# 부활절에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



## 오태희(64)

아들 녀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지 두 해가 지났다. 서른 셋의 젊은 나이에 마지막 숨을 거둔 아들은 고전음악을 현대음악으로 탈바꿈하는 재즈에 몰두하다 피아노 건반에 머리를 부딪치며 청중 앞에서 쓰러졌다. 병실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밤마다 병마와 싸우던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 오면 나는 아직도 내 정신이 아니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언제고 한 번 떠나야 하는 인생이지만 아들이 서둘러 떠나가고 나니 세상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 천재는 요절하고 하늘은 선한 사람을 먼저 불러 간다는 말을 믿기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모든 일에는 차례가 있다. 그러나 하늘이 사람을 불러가는 일에는 차례가 없으니 믿기가 어렵다. 하찮은 위신 때문에 눈물을 감추고, 터지는 울음을 삼켜야 하는 세상만사가 원망스럽다. 아들의 열 손가락 마디마다 흘러나오던 재즈의 멜로디를 제대로 즐길 겨를도 없이 눈물이 강물되어 흘러내리는 내 가슴은 쓰러기만 하다

캘리포니아 예술학원 (CAL. ARTS) 에서 치른 추도식에서 로이츠스틴 (David Roitstein) 재즈학과 주임교수의 추도사가 생각난다.

"한 사람의 연주가를,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연주자들이 서로 알고 찾아오는 것은 처음 본다. 내가 죽어도 이렇게 많은 음악가가 이처럼 한꺼번에 찾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꿈을 꾸고 있었다. 내 장례식에서 장송곡을 연주하며 악단을 지휘하는 아들의 대견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꿈이었다. 그 꿈이 너무나 행복하던 꿈이었기에 느닷없이 악몽으로 변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신의 섭리가 이런 것인가? 아니면 신이 미소를 거둔 탓일까? 가버린 아들은 부활절이 두 번이나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말이다.

My son P.J. (Peter J. 1969-2003) loved music and he would have been a wonderful musician. He was not a perfect jazz pianist but always wanted to be a better one. Words cannot express my sorrow how much I dearly miss him. My heart goes out to those who happened to know him not only as a creative musician but also as a kind human being. (Easter, 2005)

교목의 90종이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보아도 흔히 보는 명승지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5년 전에 UNESCO가 이곳을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정한 사실만 보아도 그 진가를 짐작하게 한다. 에코우 포인트에서 보는 조망도 좋았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 협곡의 덩굴사이로 낸 보드워크를 걸어가며 진귀한 수목들을 보는 재미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생생한 기억으로 회상된다. 이 밖에 뉴캐슬(Newcastle)에서 멀지 않는 벨스만의 포트 스테븐(Port Stephen) 해변 모래썰매타기 돌핀 크루즈 탐승 수족관과 야생 동물원 미술관 관광 등으로 이틀을 보냈다.

시드니 항은 세계 삼대 미항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 경관이 수려한 것뿐만 아니라 항구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이 구비된 항구이다. 항구의 규모가 대단할 뿐 아니라 산세 같은 수천톤급의 배가 시내 깊숙이 정박하는 이상항이다. 배를 타고 한바퀴 돌며 놀라울 정도로 정결한 불과 항만을 둘러싼 산과 푸른 숲 색깔이 풍부한 건물들 모든 것이 미항의 칭호에 수긍이 가는 절묘한 풍경이다. 대양과 항만사이를 막은 시드니 항 국립공원에 튀어나온 절벽 위를 걸어가며 남태평양의 구로시오 (黑潮, black current)가 암벽을 뒤덮는 광경을 바라보는 감회는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지가 않다. 우리가 묵은 호텔 앞의 본다이(Bondi) 비치의 백사장도 아름답고 모래가 비단같이 부드럽다. 요다음 다시 꼭 찾고 싶은 곳이다. 구름이 없는 날은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 해변 가를 걷고 물 속에 잠기며 그리고 호텔 창 넘어 바다를 내다보고 책이나 읽으며 한주일 쯤 묵는 재미가 좋을 것 같은 곳이다.

그렇게 선불력을 열심히 발랐는데도 십여일의 휴가가 끝날 무렵에는 새까맣게 타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발바닥에 일도 화상까지 입었다. 포트 스테븐에서 모래썰매를 탄 것까지는 좋았는데 햇빛에 달아오른 모래 위를 맨발로 걸어서 무사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월 7일에 일어난 일이다. 남반부와 북반부의 절후가 반대가 된다는 것은 들어온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글거

리는 태양아래서 한여름을 체험(體驗)한다는 것은 경이롭다. 머리 속으로 그곳은 지금 여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몸소 여름 속에 있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20여 시간의 비행기 여행 끝에 우리는 며칠이나마 여름을 만끽하고 있다. 공간의 전위 (轉位, translocation)가 가져다준 시간의 전이 (轉移, transition)는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관계 지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겨울 나그네는 여름을 찾아가 2 주일을 즐겼다가 다시 제자리인 겨울나라로 돌아온다.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여행의 묘미는 낯선 곳을 찾아가 색다른 풍경을 보고 과거의 유적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와 못지 않게 즐거운 일은 새 친구를 맺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번에 캔베라에 있는 친지를 찾아가 우애를 나누며 사흘을 보낸 즐거움은 이루 다 그릴수가 없다. 그리고 캔베라를 떠난 우리 두 쌍의 부부는 NZ로 들어가며 초면인 세 쌍의 부부를 만나 같은 버스 같은 호텔을 쓰며 남은 9일간의 여행을 함께 한 경험은 각별하다. 두 쌍의 부부는 뉴저지에서 한 쌍은 뉴햄프셔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로서 하나같이 역경을 뛰어넘어 이민생활의 뿌리를 내린 성공한 분들로서 여행을 하는 동안 한분 한분 진솔하게 들려준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순탄하다면 순탄하고 기복이 없이 어쩌면 단조롭게 살아온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적인 메시지가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은 생소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고 가슴을 열어놓게 되면서 십년지기(十年知己) 같이 되었다. 오래 전부터 세계 각처를 답사한 분들이라 여행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서 배울 수도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에는 큰 백지에 각자의 생명과 주소를 적어 사본을 나누어 가지며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며 다음 여행의 일정을 짜보라고 하였다. 이 계획이 성사되든 안되든 여행을 하며 훌륭한 친구를 맺게된 것만으로도 더 없이 즐거운 일이다. 오래 기억에 남을 참 재미있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플루탈의 리스본에서 떠나는 Mediterranean cruise에 우리 동기 5가족, 김용재 윤낙승 정양수 최영자 홍준호씨 부부와 내 친구 강순화 부부, Rael과 그의 어머니 이렇게 20명이 우리 일행이었다. Ms. Westerdam이라는 8만톤짜리 새 배는 큰 호텔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했다. 2천명이나 되는 관광객과 천여명의 승무원이 항상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밀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잘 진행되고 있었다. 식사시간과 테이블도 미리 정해져 있어서 친절한 웨이터가 밀어주는 의자에 앉아서 퍼주는 밥킨을 받고 메뉴에 나오는 고급요리를 골라 먹으며 한 평생 식구들에게 식사를 써브하던 우리 마나남들이 여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즐거웠다. 9층 식당에는 항상 뷔페 음식이 잔뜩 있지만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앉아서 써브 받으며 먹고 싶어서 아침에도 시간이 되면 2층 식당엘 가서 아침 식사를 즐겼다.

배는 보통 저녁 6시쯤 떠나서 항해를 시작하는데 지중해가 워낙 호수처럼 잔잔해서 전혀 멀미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12일간 여러곳을 들리게 돼 있는데 각자 한군데씩 맡아서 그곳의 특징, 특산물, 문화 등에 관해 공부해 오자고 해서 저녁식사후 한 방에 모여 내일 볼 곳에 관해 예비 지식도 얻고, 그날 구경하고 온곳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포도주에 관해 많이 연구하신 김용재씨가 포투갈에서는 Port, 스페인에서는 sherry를 사오셔서 모임 때마다 desert wine를 즐겼다.

리스본을 떠난 배가 지브랄탈 해협을 지날땐 안개가 끼어 바위산은 볼수가 없었다. 스페인의 알메리아에 도착해서 각자가 택한 관광코스를 미리 배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수십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그날 관광이 시작된다. 우리 버스의 투어 가이드는 어찌나 영어를 못하는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스페인어만 하며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미국인들이 불평하는거다. 왜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냐고.

다음날은 '팔마 디 말로카'라는 섬에 도착했다. 스페인의 진주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부두에 떠 있는 수많은 멋진 야트들로 도시가 한층 돋보였다. 스페인 왕이 여름 두달을 이곳에서 국정을 본댄다. 컴퓨터가 발달돼 많은 사람들이 이곳 휴양지에 살면서 멀리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댄다. 아름다운 성당을 구경했다.

다음날은 발셀로니아에 도착했는데 현대적 건물에 발코니들이 있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건축 디자인을 하는 딸 아이가 왜 그렇게 발셀로니아를 좋아했는지 금방 이해가 갔다.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Gaudi라는 건축가가

설계해서 3백년째 짓고 있는 Sagrada 성당은 뾰족한 첨탑이 많고 탑 꼭대기마다 원색의 과일이 올려져 있고 성당의부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조각해서 수없이 많은 조각이 있었고 완성될 걸 다시 와서 보고 싶었다. 가우디가 살던 집은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벽을 모자이크해서 꼭 등꽃이 피어있는 것 같이 보이고 지붕은 용의 비늘같이 만들어서 동화속에 나오는 집 같았다.

미국에서 우리가 보던, 생각하던 스

## Mediterranean Cruise

김혜자



페니쉬와는 달리 멋쟁이들이었다.

배가 이름도 근사한 말세이유 항구에 도착했다. 우리 Provence라는 산 꼭대기의 마을로 관광을 갔다. 옛날 세잔느가 미술학교를 다녔고, 그가 걸어 다녔다는 발자국을 새겨놓은 예술의 도시에는 장이 서고 있었고, 맛있게 익은 과일들과 herb들과 농산물들을 팔고 있었다. 원색의 식탁보들을 팔고 있는데 그곳의 밝은 태양을 닮아 어찌나 예쁜지 이것 저것 자꾸 샀더니 "혜자씨 식당 차려야요?"하고 한마디 들었다. 학교 다닐때 지중해 섬 기후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매일 화장한 파란 하늘이 그 빛을 받아 물색은 짙푸른 토파스 색이었다. 기온도 82~84도 정도로 따뜻했다.

오후에는 말세이유 항구를 관광 트롤리를 타고 한바퀴 돌았다. 산 꼭대기에 있는 노틀담 바실리카라는 성당에 올라가니 온 창구와 시내가 360도 뱅뱅 돌아가며 보였다. 그 성당도 아름다웠고 그 첨탑을 찍은 사진은 그림엽서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배가 모나코의 몬테칼로에 도착할때 불빛이 휘황찬란해 "아아 과연 몬테칼로는 아름답구나"하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 관광은 오후에 시작이어서 오전에 우리끼리 기차를 타고 볼란서 니스에 갔다 오자고 해서 최영자씨 제안대로 아침을 일찍 먹고 작은배 tender를 타고 부두에 내려서 역을 찾아갔다. 길 묻은 우리에게 불어로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해진 것 같다.

기차에서 내다보는 French Rivira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그림같은 도시와 절벽의 경치에 우리 계속 감탄사를 질렀다. 니스 역에서 내려 해변까지 걸어가는데 집들도 정원도 꽃들도 어찌나 예쁘던지 볼란서 사람들의 세련된

색감과 미적 감각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니스의 해변을 놀랍게도 검은 자갈돌이었다. 해변에 늘어선 야자수, 파라솔, 벤치들, 건물들은 아름다운데 자갈돌을 걸어서 바지를 걸어 울리고 물에 들어 갔다가 걸어 나오려니 보통 힘드게 아니었다. 남편은 수영복 안 입고 온 걸 어찌나 후회하던지 새벽에 찬란해 보이던 불빛과는 달리 모나코는 너무나 좁은 절벽 위에서 서 있는 왕국이어서 뻗을 데라고는 하늘 밖에 없어서 모든 건물이 절벽 위에서 하늘

높이 솟아있고 땅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지하 주차장으로 가곤했다.

Grace Kelly가 결혼식을 올렸고 장례식을 치렀고 묻혀있는 성당을 보았다. 우리 관광을 끝내고 배로 돌아오는데 남편과 김용재씨는 몬테칼로 카지노에서 노름 환관을 하겠다고 남았다.

닥터 김은 초반에 돈을 따서 금방 일어나셨는데 남편은 몽땅 다 잃고 20불 밖에 안 남았었는데 기사회생해서 본전을 다 찾고 150불 정도를 더 따가지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술도 한잔씩 사 마시고 리무진 불러서 부두까지 타고 왔으며 기분이 그만이란다. 저녁마다 배에서 블랙잭을 즐겼다. 10전 8승이었는데 딸엔 \$30~40정도 잃을땐 \$200~300정도이고, 따는 날에는 금방 밤에 돌아오고 늦도록 안오는 날은 잃은 돈을 되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날이다.

배가 큰 도시에 정박할 때는 부둣가에 안 세우고 바다 멀찌감치에 세우고는 작은배 Tender로 우릴 육지에 내려다 준다. 한번은 배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Tender를 탈때는 화장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안개가 밀려와서 한치 앞도 안보이게 되었다. 운전하던 사람도 당황해서 계속 뺏고동 소릴 지르고 승객들도 두리번 거리며 배를 찾았는데 난 재미있어 이것도 경험이다 하며 웃는데 미세스 김영철이 하도 걱정을 해서 인상적이었다. 거무스레 한게 보여 찾아가니 부두 다른 쪽이었고 안개가 개여서 산처럼 우뚝 서있는 배를 찾았다. 배가 이태리의 홀로렌스 서쪽 르보노 라는 항구에 도착했다. 우리 Luca 라는 곳을 택했다.

성당 성당 또 성당. 다들 아름답고 잘 지은 성당들이고 건축양식에 관해서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젠 좀 알듯

했다. 클래식에서 로마네스크, 비잔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네오 클래식으로 바뀌었던다. 푸치니의 생가와 동상이 있었고, 장님 성악가 안들레아 보첼리도 이곳 출신이라 해마다 이곳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른다.

피사의 사탑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돌아보았다. 세인트 테레사가 꽃에 덮혀 안장돼 있는 성당을 보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던 그녀의 애걸 들었다. 씨실리의 말레르모 항에 도착했는데 그곳도 많은 구경거리가 있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차례대로 점령을 했었고 아프리카의 무어족에게도 점령을 당해서 오래된 성당에는 몇세기에 걸친 여러 나라의 자취가 남아있었다.

성당이 99개 궁정이 200개, 큰 오페라 하우스도 있었다. 모든 유적지는 홍준호씨 말대로 전쟁과 그 다음에 참회를 하기 위한 교회, 그것이 문화인 것 같았다. 씨에스터로 문을 닫은 조지 알마니 아웃렛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노상 카페에 앉아서 술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씩을 마셨다.

다음날은 선장의 충고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타 항구에 들어가는 장관을 구경했다. 외세의 침략이 하도 많아 온 항구를 철통같이 돌 성벽으로 완전무장한 특이한 풍경이었다. 그래서 공상영화를 많이 찍는댄다.

물도 귀하고 보이는선 선인장 뿐, 그래도 성당은 크고 화려하고 볼만했다. 말타에는 유난히 관광객이 붐비고 있었는데 내가 친구 순화랑 선당을 구경하고 나오는 동안 그 남편은 마누라를 잃어버릴걸 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찾아다녔다는 소릴 듣고 다들 "부부가 뭐지, 그래서 부부가 좋은 거지" 하며 가슴이 정하낸다.

이제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 차에 배가 오늘은 중일 항해를 해서 Mr. Etena와 활화산인 스트롬볼리를 구경했다. 갑판에 누워 그곳이 쉬었다. 오후에는 모여서 미세스 이진수씨 사회로 장기대회도 하고 소감도 얘기했는데 최영자 남편 로버트 김이 하도 진지하게 얘길해서 다들 열심히 듣다가 농담인걸 알고 한바탕 웃었다. 미세스 윤낙승씨한테 라틴 춤 배우던 것도 좋았고, 정양수씨 부부는 넓은 배 안에서 항상 우리집 사람 못 봤느냐며 찾아서 우릴 웃겼다. 미세스 김영철의 시침 똑 떼고 하는 농담과 노래도 즐거웠고.

여행의 종착지 로마의 서쪽에 있는 씨비타 베키아라는 항구에 도착해 그 많은 승객들을 공항별로 분류해 뺄로 데려다 주었다. 우리 부부는 밀라노 북쪽 알프스 산줄기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한나절 남은 시간을 로마 시내를 향했다. 20년 전에 왔던 기억을 더듬으며,

필자: 황철(66)동문 부인

어릴 때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싶어한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아야지 한다. 어른이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십대가 되어 결혼해서 아이를 자라는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고 지냈다.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게 되니 집안이 허전해지고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제는 생각하는 머리의 회전 속도가 느려졌다. 일하는 속도도 느려졌다. 작은 일에 흥분하던 것도 많이 없어졌다. 일을 빨리빨리 못하니 까 일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예 못 끝낼 일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강아지를 안을 때도 무겁게 느껴졌다. 집을 옮길 때도 한결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도 생각하는 것은 젊었을 때만하고 하나도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찌다 거울을 보면 여기저기 주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저기 검버섯이 나타난 것도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늙어가는 것이구나 깨



## 시간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나두섭 (73)

달았다. 좀더 이대로라도 그대로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시간가는 것이 아쉽다. 옛날에는 그렇게 나이 먹기를 바랐는데, 시간이 정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시간은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가고 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옛날에는 성경의 잠언이 좋았는데 이제는 전도서가 더 실감이 난다. 아직 나이가 육십이 안되었는데 벌써 주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나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운전조심, 음식조심, 성인병조심,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해야지. 세상의

여러가지 일을 당해보니 인생을 좀 더 잘 이해 하게 된 것 같다. 세상일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안된다. 이제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이유를 따지기 보다는 그냥 도와주고 싶다. 배우자가 무엇을 해달라고 한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해 줄 의향이 있다. 원한다는 것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 이유를 꼭 알아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세상을 떠나면 그나마 해줄 수도 없고 해달라고도 못할 것이 아닌가?

이제는 나보다 더 늙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예사로 보이지 않

는다. 나도 곧 그렇게 되겠지. 늙어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좀 구차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왕이면 나도 좀 멋있어 보이는 늙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념 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항상 약간의 미소를 띄는 그런 늙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는 자기 가정 꾸미느라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늙어서는 좀 더 폭넓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만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은 너무 무가치한 것이 아닐까? 물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외에 자기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가기의 성공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늙어가는 것을 거꾸로 젊게 할수는 없지만 늙어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8월 15일 저녁 부친은 동네 친지들과 인방에서 조출한 축연을 벌리고 계셨다. 좀 의아해하는 나를 보시자 건너방으로 나를 따로 데리고 가서 진짜 한국현대사를 요약해주셨다. 나는 그 날밤으로 황국신문에서 애국자로 변하였다. 동네 눈이 무서워진 우리 옆집분들은 문간방 군인들을 다 내보냈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럴수가 없었다. 친일과 소리를 들으면서 그사람들이 정식으로 미군한테 접수되고 귀국할 때까지 몇 달간 그냥 있게 해주었다. 어머니는 해방전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것들이 웬 갑자기 애국자냐 하시면서 꺼떡 없으셨다.

그런데 하루는 술에 이미 취한 해방축하 데모군중이 뽕가리를 치며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집 앞으로 드리닥 쳐 너도 조선인이나 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마침 애송이 장교를 한명 초대해서 술을 마시고 있던 문간방 군인들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직감하신 아버님은 대문 밖에 혼자 나가셔서 안면이 있는 한두 사람을 조용히 달래셨고 제일 고참군인은 우리 집에 피해를 끼치면 안된다고 일본도를 들먹거리며 장교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아버님이 막걸리 값도 좀 쥐어 주었는지 데모대열은 방향을 돌렸다. 바탕이 순한 충청도 사람들이라 돌 한번 던지지 않고 물러났을 것이다. 유혈사태가 벌어질뻔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이 시절의 대전 길바닥은 일본인 집에서 나온 수많은 물건을 싸놓고 파는 노점상으로 붐볐다. 어머니는 클래식 레코드판을 많이 사모으셨다. 나는 일본인 지점장이 그냥 두고 간 일본문학전집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때 넓은 지점장 사택으로 이사한 우리 집에 총각 행원 두명이 하숙을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나중에 대전의 대표적인 시인이 된 박용태씨로 이와나미 출판사의 일본과 세계문학 전집을 거의 다 소장하고 있어서 나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에 온 후로는 어쩌다 일본사람하고 마주쳐도 나는 일본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다. 내가 더 잘하는 영어로 쓰는 것이 유리하지 틀림없이 한국말식으로 변했을 내 일본말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많이 잊어버리기도 한 것 같다.

어느날 병동에서 골수검사 의뢰가 와서 올라가보니 간호사들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힐죽힐죽 웃는다. 국제결혼한 한국어자인데 정신이상도 있어서 반항적이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 차트의 이름을 보니까 나오미라는 일본여자였다. 좀 깨끗하면 일본인으로 알고 그렇지 못하면 기타 동양인으로 안다. 병실에 간호사가 먼저 들어가니까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니 내가 일본말로 한마디 하니 마술에

너지 궁금하다.

일본군에서 계급이 제일 높았던 한국사람은 홍중장으로 동성동본인 외조부하고 잘 아시는 사이였다. 이 분이 해방 6개월쯤 전에 인사차 일시귀국했는데 하필이면 비올빈 포포수용소 총사령관으로 발령이 나서 부임하는 길이었다. 외조부를 비롯한 친지들이 중국으로 가서 독립군으로 탈출하라고 강력히 조언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러면 나야 살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다른 조선계 군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되겠느냐 하는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

## 한국인과 일본인(2)

-본대로 느끼대로-

임영진(58)

걸린 것 처럼 순한 고양이로 돌변했다. 말은 한마디도 안했지만 나를 뚫어지게 보는 눈빛을 보니 그 동안 낯선땅에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또 구세주처럼 나타난 나를 얼마나 반겨 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다. 검사 결과는 악성빈혈이다. 몇 년후에 환자가 CT Scan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 듣는다고 연락이 왔다. 가보니까 같은 여자가 자궁경부암 말기로 들어와 있었다. 불쌍한 인생이었다.

한때 일본의 대표적 월간잡자인 문예춘추를 정기구독하고 있었는데 실업인이 쓴 수필란에 이런 글이 실려있었다. "상용으로 비올빈에게서 거래처 사람하고 나이트 클럽에 갔는데 밴드가 일본 유행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이를 들던 비올빈 사람이 이런 감미로운 노래를 작곡하는 일본인들이 비올빈에서 잔인무도한 짓을 했을 리가 없다. 아마도 제 3국인의 짓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는 말이 아무 코멘트없이 실려있었다. 문예춘추의 창간멤버인 마해송씨가 이글을 보셨다면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해방직후 비올빈에 있던 일본인들이 호신 목적으로 한국인 행세를 하다가 일파안가서 도로 일본인 행세로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돌려놓았

있다고 하시더라. 예측했던대로 홍중장은 일급 전범으로 12계단이라고 불리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다.

1998년에 국제세포학회가 있어서 일본에 갔었는데 오다가다 비행장 근처 호텔에서 몇 번 잔짓 외에는 처음 여행한 셈이다. 호텔 종업원들은 너무 친절해서 무엇을 부탁하기가 미안할 정도였다. 로비에서 좀 머뭇거리기만 해도 안내양이 기동 뒤에서 뛰어나온다. 시애틀에 사는 딸이 일본에서 합세했는데 그 당시 드물게 머리에 빨간물을 들고 왔다. 몹시 못마땅했지만 갑자기 어떻게 할수도 없었다. 그런데 놀랜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도 못본척 하는 것이다. 눈 가장사이드 살짝 보기는 하지만 머리는 돌리지 않을뿐더러 인구조차 돌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는 경도의 게이샤 거리인 '기온' 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사진 동호회인듯한 사람들이 모델로 고용한 성장한 게이샤들이 둘러싸고 이리저리 촬영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한사람이 뛰어와서 딸 사진을 같이 찍게 해달라고 동의를 구했다. 고전적 게이샤하고 초현대관 여인이 자아내는 대조화 조화를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게 하면서 촬영대회는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딸을 끌어낼때 까지 한없이 계속되었다.

그 길로 한국에 나오니까 여학생들은 물론 아줌마들까지 "저것 보라" "저것 보라"하면서 떠들어대어 딸하고 같이 나가기도 싫었다. 좋게 말하면 솔직한 사람들이다.

한국말이 유창한 나의 미국인 동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앉은 여학생들이 "야 저사람 양놈치고는 못생겼다." 하며 깔깔대서 뒤를 돌아보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버스전체가 물을 끼어얌은 듯 속연해지더라고 한다.

전에 알고 지내던 함부통령 손자되는 분이 아이오와 대학 재학시 일본 학생하고 룸 메이트를 했는데 일본 학생친구가 놀러오면 저분 누구시냐고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기 친구가 놀러오면 "저 새끼 누구야, 족발이 아니야." 하기가 일수였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동안 마침 LPGA 메이저 대회가 미국서 열리고 있었는데 신문 스포츠란에는 그 당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박세리의 기사가 매일 톱 뉴스로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잘 써줄수가 없었다. 이와 대조적인 것은 한국신문이다. 일본인 야구투수 노모가 잘못던지면 고소한듯한 논조로 빈정댄다.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도 언론만은 오히려 퇴보된듯하다. 요즘 미국에 관한 기사는 천편일률적으로 악의에 차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인지 sense of balance가 없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군정시대에 상업광고주가 없어진 동아일보를 도와 주려고 열심히 광고문을 쓰던 시절이 그립다.

일본에서 한가지 눈에 거슬린 것은 큰 빌딩입구나 식당입구에 써붙여놓은 "이상한 외국인을 조심하라"는 표말이었다. 식당에 상의를 걸여놓으면 소매치기를 당한다는 모양인데 소매치기는 외국인 뿐인지 알수 없다.

이것이 대충 나의 개인적인 본대로 느끼대로의 수식없는 "한,일 관계" 증언이다. 모든 민족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이 섞인 집단이다. 물론 집단적인 성향에는 차이가 있으나 많은 것이 개인 나름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나쁜 선입감을 버리고 open minded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만났구나.  
네가 드디어 결혼을 하였구나.  
네가 마침내 우리들을 떠나는구나.  
아직도 너는 우리에게는 아들이요,  
아기요, 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네가 태어날 때가 생각이 나는구나.  
30년 전 부활절 새벽에 태어났지.  
어찌나 머리가 크던지 너의 엄마를  
몹시도 아프게 하였지.  
왜 그렇게 잘 울던지 우리를 자주  
깨웠지.

왜 그렇게 많이 싸는지 우리를 바쁘게  
했지. 자주 아파서 우리를 가슴을  
태웠지.

자라면서 지기를 싫어했지. 항상 이  
길려고 했지.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  
서나, 특히 네 아버지에게서 말이다.  
네 아버지 보다는 더 좋은 남자가 되  
겠다고 다짐했겠지. 자라면서 네 어머  
니를 더 좋아했고 친구들을 더 좋아했  
고, 스포츠를 더 좋아했지.

그러나 너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었다. 지기 싫어함은 성  
실함과 모범생으로 이롭게 하였다.

너의 울음과 불만은 우리의 사랑을  
더욱 키워 주었다. 네 아버지보다는  
다른 남자가 되겠다 함도 너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겠  
지! 아버지처럼 의사도 되었고 아버지  
와 비슷한 아담하고, 너의 엄마와 같  
은 청룡한 Kate를 선택했으니 말이다.  
너의 DNA(gene) 유전자의 반은 내것  
이고, 특히 Y염색체는 내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린 서로 많은 공통점을 만들  
어 갔다.  
준기야! 우린 항상 네가 믿음직스럽

고 자랑스러워 한단다.  
이제는 네가 가장 큰 만남을 가졌다.  
네가 가장 큰 결정을 내리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했고, 네가 했  
고, 아니 우연인것 같으나, 이 모든 것  
이 하나님께서 하셨단다.  
너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

때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만들  
어진단다. 아니 우리가 그 십자가 위  
에서 죽어야한다고 말씀 하신다. 그러  
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새로운 창조물  
이 탄생한다고 말이다. 새 힘도 주신  
다, 새 능력도 주신다.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귀중하

나 너희들 결혼 속에서 힘들고 어려  
운 때를 만나면 항상 성경 속으로 들어  
가라. 이 성경 속에는 결혼의 원리가 있  
다. 삶의 지혜가 있다. 행복의 비결이  
있고 사랑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구  
원의 비밀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너희들  
의 사랑을 깊고 변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  
가를 따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깨  
닫고 감격하게 만드는 성령님께 인도  
하고 지켜 달라고 기도하라.

이 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을 꼭 해  
야 될것 같구나. 9년전 네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여름에 핑계만 대고 선교  
를 가지 않는 나에게 아버지와 함께  
아마존 정글로 선교가자고 하였지. 그  
래 그곳에 가서는 바다 같고 피라냐가  
많은 강물속에서 우리 배가 포류할 때  
서로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지, 암흑속  
의 원주민들에게 함께 의뢰 봉사를 하  
였지, 파나래의 밤 예배속에서 성령님  
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았지. 특히 네  
가 간증한 말을 잊지 못한다. "나만을  
위한 의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말이다.

이제 이 성경말씀으로 끝내겠다. "우  
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  
은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  
하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  
려 하심이라. (에베 2:10)

God Bless You. We Love You.  
항상 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아빠로부터...



## 사랑하는 아들 준기에게

홍성진(71)

다. 너를 이제까지 자라게 하셨고, 인  
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  
랑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네가 우리의 아들이 된것도, 네가 의  
사가 된것도, 네가 Kate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섭리 안  
에서 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자들  
을 사용하시어 협력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갈비뼈로 Kate를  
창조하셨고, 너의 옆에 끌어 오셨고,  
그 빈자리를 채우셨다. 그 갈비뼈로  
너의 폐와 심장을 보호하고 강하게 한  
다. 그러니, 항상 너의 옆에 붙어 있어  
야 한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의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고백하게 하신다. 서로 벌거벗어 부끄  
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동산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십  
자가도 주셨다. 서로 바라만 보던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 만드신다. 합칠

소중하다. 소유할길 원한다. 그 십자가  
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만남은 사랑의 시작이다. 너희들의  
만남이 사랑의 완성이 아닌것처럼, 결  
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 결혼은  
또한 더 깊은 사랑의 시작이며 새로운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사랑은 저  
절로 자라는 야생초가 아니다. 인내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향기로운 꽃을 피  
우는 한포기 난초와 같은 것이다. 결  
혼은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결혼은  
사계절이 있단다. 그것을 인정하고 즐  
겨라. 결혼의 꽃밭에는 항상 여우가  
헤쳐 놓으려 한다. 항상 깨어 있으라.  
결혼에는 파도도 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라.

"사랑"의 법에는 판단과 비판만 있  
고, 상처를 주기만 한다. 파괴 시킨다.  
서로를 갈라 놓기만 한다. 그러나 하  
나님의 법에는 사랑이 있다. 용서가  
있다. 회생이 있다. 치유해 한다. 연합  
하게 한다. 새로운 창조가 있다. 언제

살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글을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분명 김일훈(金日勳) 동문은 후자에 속한다.

그에게는 쓰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고, 그런 느낌으로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있는 한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쓰기를 멈출 수 없다. 그는 무엇이든 쓰지 않고서는 살아갈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2200여년 전 한무제(漢武帝)의 노여움을 산 사가(史家) 사마천(司馬遷)은 고환을 제거당하는 공형(宮刑)을 당하고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사기(史記) 130권을 완성했다.

고희를 훨씬 넘긴 그에게 그제 무엇 그리 소중 하리오만 사마천 못지않게 강박관념으로 저술하는 김일훈의 저술활동은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의 글을 읽으면 무슨 뚜렷한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날카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분석해 쓰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매주 '의학신문'에 기고하는 글은 물론이고, 그가 흔히 다루기 좋아하는 동양사(東洋史), 기행문 외에도 특히 그의 글에 등장하는 인물 등을 저술하는 글들은 종합무진으로 다양하다. 그는 워낙 인간에 대해 무한한 호기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

### 고령 불구 집필 종합무진

그의 인간 이해의 열쇠는 세심한 감각으로 사람을 관찰하고 인간의 본질을 파악해 내는 관찰쟁이와 같은 예리한 천부적 재질에 있다. 사람이면 아무나 풍기는 인간적 냄새를 감지하는 미세한 육감의 소유자인 듯하다. 그래서 그가 문장 중에 기술하는 인물들에 대한 그의 조예(造詣)와 함축(含蓄)은 날카롭고 깊은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머리 속에는 두툼한 전화번호책이 들어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명록을 저장하고 있다니 상상할 수도 없다. 그것도 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형사처럼 다 파악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귀신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기억력을 철마다 업그레이드하는 '컴퓨터 메모리'라고 비유한 적도 있지만 과히 과장한 표현은 아니다.

인물상을 묘사하는데 있어 자질구레한 일화, 풍문까지도 재치있게 활용해 기술하는 그의 작가로서의 필재(筆才)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역사 속에 사라진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인물들을 설득력 있게 발굴 재조명하는 그의 솜씨는 기막히다.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기억이다. 그리운 곳과 사람들, 언제인가 찾아가 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를 위해 그런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작가로서의 필재에 감탄

그가 소년시절의 몽상(夢想)을 좇던 마음의 고향은 중원(中原)의 동북방, 그곳은 마적당들이 할거하던 광활한 여진족들의 터전 만주 땅이다.

청조(淸朝)의 발상지 고도 심양(瀋陽)은 잔뼈가 자란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 그의 향수심(鄉愁心)은 각별한가 보다. 그동안 긴 여로 후에 백발이 되어 인생의 시발점에 되돌아간 그의 심정은 만강(滿腔)에 차 있었으리라.

"해방직전 55년 전의 나는 철부지 소년이라 옛 보금자리에 돌아온 감회는 너무나 흐뭇했다 -비행기가 심양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는 나이를 잊어버린 듯 옛 소년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으니 말이다." 이것은 그의 심양 기

행문에서 인용한 한토막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소멸할 따름이다. 그렇게 300년 가까이 부강 영화를 누렸던 청조도 망하고 만주족과 그 언어까지 증발해 없어졌다. 그러나 유구한 산천(山川)은 역사의 무상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역사와 풍토 배경에 젖은 그는 두루 동양 여러 나라의 언어에 능통하

열독(熟讀)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을 즐기는 그는 읽은 것을 선택해서 기억하는 능력이 비범하다. 지식이란 활자를 읽고 이해하고 머리 속에 편집하고 정리된 것을 기억해서 필요에 따라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야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풍부한 지식은 놀랍고 부럽기만 하다

昧)했다.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일진데,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룩할 몫이다. 김일훈에 대한 글을 쓰게 되는 연유도 바로 그곳에 있다.

'燕岩 朴趾源과 일본 蘭醫學'이란 글에서 그는 매듭하기를 "오늘의 의료대란을 예방하려는 선견지명을 지녔던 우리의 선현 '연암 박지원 선생'을 생각해 본다" 그가 지적하고자 하는 한 심스러운 한국의 의료 제도를 결론지은 한 구절이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조선 선비 모두가 연암선생 같이 일본인의 신학문을 향한 왕성한 학구열을 분발해야 했었다. 그것이 일본의 선진화와 나아가서는 경제대국과 세계열강이 되는 밑거름이었기 때문이

다" 이것이 그가 강조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이니, 말을 풀이하면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더듬돌로 새것을 알라'는 고사에 나오는 말이다. 의협심(義俠心)이 강한 그는 한국 의료인들의 침묵을 몹시 한탄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목적을 둔우고 있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진 미국 일본의 의료제도를 소개함으로써 낙후한 한국의 의료제도를 계몽 각성하려고 노력한 공은 크다.

### '모국 의료황폐화' 목청 높여

마지막으로 김일훈 동문이 쓴 한국의 최고 명의(名醫) 민병석 선생의 회고담을 소개한다. "꺼져가는 인물,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민선생을 소개한다"하고 서두를 열며 민선생의 남긴 말을 다음같이 인용한다. "의사는 지나친 금전욕 및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와룡선생의 고무한 수신 한 토막처럼 들리지만 두고두고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한국에 있을 때 그가 민선생을 한동안 가까이 모시고 교류한 관계로 익히 아는 처지다.

그가 과히 한국 제일의 명의라 일컬은 사유인즉, 의사로서 민선생의 탁월한 실력은 제쳐 놓고도, 학자로서 갖춰야 할 학(鶴)과 같은 고매한 인격, 청빈한 선비의 삶, 후덕한 인품, 아무에게나 안온하고 인자한 마음씨,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겸손하고 수탈한 인간미 등등 그런 것들이 몸에서 발하는 성기(聖氣)로 凡人들이 좀처럼 흉내 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성의(聖醫)의 상징으로 거하는 故 민병석 선생을 그린 김일훈 동문의 글은 문필가로서의 그의 진가를 말해주고 있다.

절세미인과 성인 천재는 단명이라 했던가. 어의(御醫)로서 랭군 테러에서 순직한 민병석 선생의 명복을 삼가 빌어 마지않은 애석한 심정을 피력한 김일훈의 글은 가슴 깊이 와닿아 그 여운이 남아 길게 맴돈다

필자: 미국 정신과 전문의, 정신문화평론가 .

김일훈 동문의 글들은, 1. 김일훈 '건강돌보기' 지금까지 184편을 찾아 읽을 수 있음.

www.bosa.co.kr에 들어가면 보사-의학신문이 나옴. 아래쪽에 김일훈 사진과 함께 최신 글 제목이 나옴. 과거 글은 'more' 클릭하면 184개 리스트가 나옴. 각 리스트 클릭하면 글이 나옴.

2. KMA(대한사협회) 신문에 Health Care 문제를 논의한 '김일훈 칼럼' 지금까지 109개 찾아 읽을 수 있음.

www.kmatimes에 들어가면 의학신문이 나옴. '주간의학신문'을 클릭해서, 그곳 '연재물'을 클릭하면 '김일훈 칼럼'이 최근부터 순서대로 칼럼 109개가 나옴.

# 글을 쓰기 위해 사는 사람 '김일훈 박사' 글을 읽고

김 경 태(55)

### 방대한 독서량에 지식충만

김일훈의 왕성한 집필 의지력의 수수께끼는 과연 무엇일까.

그의 문필활동은 보통사람들의 능력 범위를 훨씬 넘는 초인적인 것이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못지않은 강한 인내력을 견뎌낸 뒷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저력은 불도저에 비길만하다.

잡다한 정보들을 제각기 해당 범주에 분류 요약하고, 잡다한 사물에서 하나의 보편적 법칙을 이끌어내서 포괄적으로 함의점에 도달하는 그의 종합적 사고력은 뛰어나다. 그의 글이 자아내는 분위기와 이야기의 전개는 언제나 유연하고 읽어서 재미나고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어 유익하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으면 끝내기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재미난다. 여담, 잡담 등 이야기를 즐겨하는 호담가(好談家)라고나 할까. 신바람이 나면 말의 흐름을 타고 종합무진이다.

사교(社交) 담화 감각이 예민한 그는 적절한 화제를 올리는데 날카로운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말의 구사력이 빼어나 입담이 거침없어 그의 말을 구술하면 번듯한 문장 한토막이 될지도 하다. 그렇게 그의 화술은 경쾌하고 매끄러워 살아서 뛰는 듯 생동감에 넘쳐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때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는 걸 모른다.

그의 글이나 이야기는 대개 읽고 들어서 알기 쉽다. 그것은 그가 완전히 식히고 이해한 까닭이다. 흔히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는 글들은 우리가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법이다. 그런 글들은 어딘가 체하고 거만한 느낌을 준다. 그의 글에는 그런 투는 전혀 느낄 수 없고 수더분하고 어딘지 여유가 있다.

### 공식한 문체 이해도 쉬워

그와 접하는 사이에 어느새도 모르게 무엇이든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의 무궁무진한 지식뿐 아니라 그의 학구적 태도, 인간적 매력과 덕성 등에 머리가 수그러진다. 그는 사람의 범만 고치는 소의(小醫)를 벗어나 한국의 의료병폐(醫療病弊)를 몹시 걱정하는 대의(大醫)로서 우려감을 호소하는 글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의 인생을 한번 걸 만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

인기리에 방영된 KBS 드라마 '목민심서'는 인상적이다. 정약용(丁若鏞)은 민본주의 선구자로 파란만장했던 질곡 속에 기나긴 인고의 생애 74세를 마감한다. 정약용이나 박지원(朴趾源) 등 실학 개혁 사상가들은 시운(時運)을 못타고 사라져 갔다.

휘몰아치는 모진 세파에 휘말려 여러 인걸들이 왔다가 그렇게 사라졌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들의 진가를 알아주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몽매(蒙

고 애국자이기 전에 범동양적 사상과 비전을 두루 갖춘 보기 흔치않은 문필가이자 사상가이다.

얼마 전에 쓴 그의 긴 문장 '심양 30년'이란 책에 대한 그의 말을 인용한다면 다음과 같다.

"개화기 이전에 미개한 중국 만주의 수도 심양에서 외롭게 의료선교에 헌신하고 그곳에 서구식 의과대학을 건립한 영국인 Dugald Christie의 30년간(1883-1913)의 기록을 담은 저서 '심양 30년'과 이 책을 꼭 일본 후진에게 권하겠다"는 일념으로 번역한 동경대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 해방 후 동대총장)에 대해 소개한다.

"이웃나라 지성인 야나이하라와 같은 번역가와 진정한 애국자가 한국의 료계에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하고 긴 글을 매듭지었다.

### 동양적 사상이 기질 농후

얼마 전인가 그가 기술한 한국의 한 심스러운 번역문학 실정이 새삼 떠오른다. 선진 구미에 뒤진 일본은 최우수 두뇌들을 다 모아 외국서적만 번역해서 따라 잡았다. 화란의 병서를 구입하기 위해 자기 딸까지 바쳤다는 일화도 있다. 번역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나 나눠 해먹는 우리나라 풍조하고는 천양지판(天壤之判)이다.

그가 자란 배경으로나 또 이야기 꺼리가 훨씬 풍부한 중국에 대한 글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이해는 과연 수준급이라 단정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김일훈은 천성적으로 합리주의자다. 동양에서 제일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개화한 능률적이고 공리(功利)적인 일본에 지대한 관심의 초점이 쏠린 것은 그로서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심성 있는 그는 다만 말을 자제하고 삼가할 뿐이다.

"교육자인 아버지는 밖에 나가 친구들과 뛰노는 씩씩한 사나이가 되기를 원했으며, 나의 독서벽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실토했다. 그는 고서(古書)에 파묻혀 사는 책벌레, 아니 책종이를 먹고사는 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다.

몇 해 전 그의 서재를 엿본 드문 사람 중의 한사람이 된 영광을 얻었다. 꼭 꺼진 조용한 서재는 책 읽고 글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벽장까지 꽉 메운 책들,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막대한 장서들, 그것들을 언제 다 읽었는지 손때가 묻어있고 군데군데 출이 쳐져 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독서량이다.

게걸들인 듯이 탐독(貪讀)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겸손하게 말한 대로 속독(速讀), 남독(濫讀), 탐독(耽讀)도 독(跳讀), 난독(亂讀), 안독(眼讀), 인독(引讀)으로 다독(多讀)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자세히 말을 주고 나누면 분명 경유에 따라서는 심독(心讀), 미독(昧讀),

알쏭달쏭한 말은 말고 당연한 말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생이 끝날때까지 사는거지."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의사가 되라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것도 아니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것도 아니야,  
 목적이 없으면 무엇하러 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자기 목숨을 끊나?  
 자살하는것이 사는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하는것은 아니겠지?  
 우리는 다 생육이라는 강한 본능이 있는걸.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지 않았어.  
 심계명 때문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있으니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또 우리에게서 꿈이 있고, 여러가지 바람과  
 좋은 욕심이 있지않은가,  
 잘 되고싶은 욕심. 남에게 도움이 되고싶은 바람,  
 새 지식을 알아내고 싶은 추구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살고싶은 욕심,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싶은 바람 등등.  
 개인으로서는 건강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즐겁게 살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고,  
 사회적으로는 남에게 해가 안되고, 내가 내 일을 해결하며 산다면  
 우선 최소의 기본문제가 해결됐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고,  
 나 때문에 이세상이 더 살기좋고 물질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윤택해 졌다면 더 더욱 좋고...  
 이렇게 내 목숨이 다 할때까지 사는거지.

너 나 할것 없이  
 목마를 때 물이 있으면 기쁘고, 배고플 때 먹을것이 있으면 기쁘고,  
 누가 나에게 잘 해주면 좋고, 나에게 잘 못해주면 섭섭하고,  
 엄연한 사실은 모처럼 태어난 인생인데...  
 그것을 단 한번 사는것인데...  
 그것을 내가 사는 것인데...

왜 의사가 됐냐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먹여 주냐?  
 쓰레기 치우거나 지게꾼 노릇하는것이 의사 노릇하는것보다  
 더 쉽고 즐거운 일이라는 말은 아니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선하고 전지전능한 누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은 아냐,  
 천진 난만한 어린애가 병으로 고생하고, 그러다 죽고,  
 지진이나 홍수 또는 쓰나미로 수만명이 몰살 당하고, 전쟁으로 비참하게 죽고,  
 이 일로 괴로워 해야하고 저 일로 슬퍼해야 하고.  
 아프리카 정글에서 연약한 사슴이 사자에게 쫓기다가  
 드디어는 잡혀 먹혀야 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상이지.  
 자비하신 하나님 이세상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동물이 동물을 잡아 먹어야만 살수있게 만들었지?  
 얼마나 애처럽고 잔인한 일이야.  
 우리는 의례히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살지만 생각해봐,  
 하루에도 수 많은 소, 돼지, 닭을 죽여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이 일이 없어지지는 않아.  
 모든 동물 세계가 그런걸.  
 연어가 알을 낳기위해 애써서 상류로 올라오다  
 작은 폭포를 만나 하는수없이 안간힘을 다해 공중으로 튀었는데  
 기다리고있던 곰의 아가리에 덥석 잡혀 질경질경 씹혀 먹히다니...  
 그저 그러려니 하거나 곰의 능숙한 재주만 감탄하지말고 연어의 입장에서 생각  
 해봐, 얼마나 처처구니 없고 원통하고 슬프고 잔인한 일이야.  
 또 "몽매한 인간이 감히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는가"라고  
 하시네. 참 너그럽고 이해심도 많으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우리에게서 직감이라는것이 있지 않은가.

하기야 인체의 생리작용을 관찰하면 참으로 묘하지.  
 가령 난자라는 하나의 세포가 자라고 분화해서 눈이 되고 손이되고  
 심장이 되고, 그래서 애기가 될수있다는 것이 무한히 신기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지,  
 하지만 실패작은 또 얼마나 많다고.  
 수정이 잘 못된 쪽쟁이 난자, 기형으로 자라다가 낙태되는 경우,  
 또는 기형아로 태어나 온 집안식구가 검은 구름 밑에서 나날을 보내야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죽으면 고만이지 뭐.  
 이렇게 자존심이 있고 알뜰하게 살려는 내가 죽으면 고만이라니 섭섭하지 않  
 냐고? 그야 한없이 섭섭하고 허무하지. 하지만 어떻게해. 그것이 인생인걸.  
 발버둥을 치면 사정이 달라진다면 그렇게하겠건만.

영생을 한다는 저 세상이 있다면 그 영생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거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만 하지 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추측해봐.  
 돌아 다니냐? 가만히 한자리에 있냐? 서로 보며 소통하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지? 듣냐? 보냐?  
 성경계시록에 의하면 흰 두르마기를 입고 있다는데  
 그러면 공간을 차지하는 육체가 있는 존재란 말인가?

그렇다고 사는것이 따분하다고 하지 않았어.  
 인생은 참으로 훌륭하고 살만하지. 즐겁고 신나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일이 원하는대로 술술 풀릴때, 자녀가 잘 될때 또는 기특한 일을 했을때,  
 반가운 친구를 만날때,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때, 좋은 연기나 강의로 청중을 도취시켰을때,  
 아름다운 음악, 가령 화음이 잘 맞는 이중창을 들을때,  
 좋은 책을 읽을때, 아름다운 여인을 볼때, 즐거운 여행을 할때,  
 아름다운 경치를 볼때, 잠을 달게 자고 났을때, 골프가 잘 될때...  
 물론 슬플때도 많고,  
 애끼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때, 믿던사람에게서 배반 당했을때,  
 실패했을때, 재난을 당하거나 목격했을때...

괴로울때도 많고.

병으로 고생할 때, 일이 배배 꼬이기만 하고  
 잘 풀리지 않아 살기가 힘들 때,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이것이 거의 모든 오  
 페라의 주제가 아닌가) 등등.  
 이렇게 이 주어진 생명이 다할때까지  
 사는거지.  
 이왕이면 즐겁게, 올바르게,  
 비겁하지 않게, 자기 분수에 맞게,  
 너무 욕심내지 말며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  
 라 이겨야 상식이 아닌가),  
 중용을 지키며, 흠족할줄 알고...  
 사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며(큰 일을 당하고나면 그 윤곽이 더 뚜렷해지지)  
 남이 하는 모든 줄다리기에 끼어들어 쪼쪼매며 살 필요도 없고.

# 산다는 것

왕 규 현(63)

미련하고 우수꽝스럽고 이해안되는 일도 많아.  
 영화 God Father에서는 두 패가 죽자사자 싸우는데 그것이  
 다 스스로 부과한 (self-imposed) 임무이니 얼마나 우수꽝스러운가.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일이 허다하지.  
 미련하고 음식을 모독하는 경기로는  
 한자리에서 누가 Hot dog을 많이 먹나 내기하는 경기.  
 Demolition Derby가 있다는것은 우리의 한구석에 파괴의 근성이 있다는 말.  
 스페인의 황소에게 물리는 축제 (Fiesta of San Fermin)도 이해가 안되고,  
 삼국지는 모략의 역사.

별의 별 인생도 있고.  
 간첩이나 지리산의 빨치산과 같은 지독한 인생. 살인범같은 악독한 인생.  
 장모의 돈을 미리 유산받으려고 부인과 협잡해서 장모를 죽이는 인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신장병으로 죽어가는 여동생에게  
 이식시켜 살려내는 가혹한 사람도 있고.  
 또는 열 마을의 노인처럼 인심 좋고 덕망이 높은 사람,  
 인간미가 흐르는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 솔기로운 사람. 교활한 사람.  
 얄미운 사람. 심술궂은 사람, 도대체 신용이 없는 사람... 등등.

어떤 고아는 "도대체 내 엄마는 어떻게 된사람이기에 나를 버렸지"라고  
 원망하며 평생을 살고,  
 또 어떤 고아는 "도대체 내 엄마는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길래  
 나를 버려야만 했지" 라고 엄마의 입장을 슬퍼하며 살고.  
 기구한 운명도 있고.  
 가령 KAL 기를 폭파한 김현희의 경우를 생각해봐.  
 어렸을때 예쁘고 똑똑해서 특별히 뽐렸을때는 신이 났었는데  
 드디어는 특수훈련을 받아 공작원이 되어 외국에서 피랍을 흘리며 일하다  
 귀국하는 노동자가 탄 비행기를 폭파하게 되고,  
 잡혔을때 준비했던 독약을 제대로 삼키지 않아(실수로? 고의로?) 살아나서  
 그 유가족들의 눈총을 받으며 여생을 살아야하니...  
 아! 기구한 운명이야!  
 그런가하면 평생을 순풍을 타고 뺏노리하듯 걱정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 혼자 살수는 없지.  
 내가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크게 영향을 받게되.  
 가령 3000년 전에 에집트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피라민 쌓느라고  
 큰 돌을 끄집거리며 옮겼을 것이고,  
 해방후 우리 형들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의 치열한 판가름에서  
 그 어느 한 편에 들었어야 했고,  
 6.25 사변이 터지니 자기나름대로의 신념을 따라 참전해서 사리사욕이  
 티끌 만큼도 없는 순정과 청춘을 송두리체 조국에 바쳐야 했지.  
 하지만 지금 자라는 세대는 공산주의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한번도 입에 올리질않고 자기 경력만 추구하며 살수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건 나는 지금 여기에 살고있으니  
 이 목숨이 다 할때까지 이렇게 사는거지.

바쁘게 살다보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수가 있지.  
 내가 나중에 후회 안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는 훗날 자기가 임  
 종 자리에 누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볼때를 상상해 보는 것.  
 그때 "그런대로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유감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벌써  
 우리 후세가 몰라오고 있네. 우리는 밀려나수 밖에.  
 그러고보니 우리 앞 세대는 이미 가고 없구나.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가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지난 수 만년을 그렇게 해왔구나.

한평생 사는 것을 부부끼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지와, 이웃과  
 또는 남과 아옹다옹하며 살것 없지.

# 편집실 동정

많은 동문들이 좋은 글들을 보내왔다. 어떤 글들은 다음 호에 실어야 할 정도이다. 글이 너무 길지 않도록 협력해 주기 바란다. 원고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면)

춘분과 부활절이 지난지 얼마 안되었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계탑 편집위원들이 거의 모두 모여 원고를 진지하게 정리했다. 제한된 지면이기에 두 편이상을 보내주신 원고중에 한편만 심고 다른 글은 다음 호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주 장편의 글은 연속해서 심기로 했는데 저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 (許)

지난호 시계탑 편집장의 편집후기에 오자가 두 개 발견된 것이 곤혹스러운 화제였다. 인쇄소의 오류였다고 해서 체면을 살리긴 했지만 물론 오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특히 편집후기에는 절대로 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모두 느낀듯 하다. (김병석)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고 지루했다. 지난 12월에는 모친상을 당해서 시계탑 편집모임을 빼먹었다. 서울에 부리나케 가서 장남 구실을 하기는 커녕 동생들에게 육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돌아왔다. 한국에서 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 물정을 잘 모른다고 변명해도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나도 지금쯤은 미국에 뿌리를 박았어야 했을 텐데. (량)

## Informations About the Meeting

1. Please check the website for directions, etc. www.gulllakeview.com It's located in the suburb of Kalamazoo, midpoint between Detroit and Chicago, about 2 hrs and 30 min. drive from Detroit of Chicago, on I-94.

2. This event has been arranged with golf packages for three nights from June 30 to July 3. There will be 4 guests per villa which is two bed room condo and a kitchen. The cost: \$397.81 per person based on a foursome. \$478.84 per person based on a threesome. Prices include tax. Carts are extra, and \$14 per person. Those who don't play on Thur or Sun will be given credit for \$40 for not playing so that if one doesn't play Thur and Sun, one will get credit for \$80 which will be deducted from the above package prices.

3. If you could let me know which couple you and your wife want to stay with, that will be very helpful. So please write down those four guests' names and send it to me along with a check of \$100 per two guests or couple by May 10, which is the deadline.

4. Once again, the deadline is May 10. I won't be able to accommodate any more after that date so please remember.

5. I reserved tee time at 2 pm on Thur (June 30) and at 8 am on Sunday (July 3) so that you must let me know whether or not you plan to play those days.

6. In summary, (a) You write a check for \$100 per couple, Payable to Hahn J. Lee, MD (b) You write down the names of 4 guests at your villa (c) You write down whether you play on Thur and Sunday or not (d) You send the above to Hahn J. Lee, MD, 780 Hidden Pine Road, Bloomfield Hills, Michigan 48304, by May 10, 2005 My phone numbers are 248-540-0396(H), 248-569-0122(W) and 249-495-3228.

# 농담골목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여자 친구를 데려와 "아버지, 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는 안되, 그 애는 너의 누이동생이야."라고 했습니다. 얼마후, 그 젊은이가 또 하나의 여자 친구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다시 "그 여자는 안되, 그 애는 너의 누이 동생이야."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가 세번째 여자 친구를 데려왔는데, 아버지는 똑 같은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젊은이가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괜찮아, 네가 원하는 아이 누구하고도 결혼을 해, 그이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면)

이스라엘에서는 방학 때가 되면 유능한 학생을 가정교사를 불러다가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유행입니다. 딸 셋을 갖고 있는 어느 가정이 고급학년 남학생을 집에 불러다 방학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게끔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 남학생이 돌아간 후, 딸 하나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내가 그 놈이 너와 꼭 결혼하겠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학생이 답장 편지에 "그녀와 결혼을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밑에다 '추신'으로 "그런데 어느 딸이 임신했지요?"라고 적었습니다. (면)

의사: 간호사, 이 침대의 남자 환자 어디 갔지?  
간호사: 네, 하도 추워서 열이 40도까지 오른 저 여자 환자하고 함께 누워 있게 했지요. (이덕승)

어떤 아주머니가 의사에게 전화로 자기 어린 아들이 피임약을 삼켜서 큰 일이 났으니 빨리 왕진해 주십사 해서, 의사가 왕진가방을 차리고 문밖으로 나가려는데 또 전화가 왔다.

"선생님, 이젠 오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방금 막 침대 밑에서 다른 피임약 하나를 찾았거든요." (이덕승)

깊은 사고(思考)  
명망이 높으신 어느 스승님 앞에 두 학생이 찾아왔다. 장래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수학을 하던 두 젊은이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뵙고 휘하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노 스승은 고개를 가로저을뿐 말씀이 없으시다.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을 빌고 있는 두 제자가 가여웠던지 스승께서 입을 여신다.

내가 자네들에게 문제를 줄 것인즉, 대답을 들어보자.

첫 번째 문제는 두 사람의 굴뚝소제부가 굴뚝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감동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하얀 얼굴이야! 누가 먼저 세수를 할까?

한 제자가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한다.

"네, 당연히 검은 얼굴이 먼저 씻겠지요"

그러자 스승이 책망하시는 어조로 "그렇게 생각도 없이 대답을 하니까 틀리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 세수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서로 상대 얼굴을 쳐다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얼굴이 깨끗할거라고! 다른 사람은 나도 저 사람 얼굴처럼 깨끗할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법이야.

한번만 더 물어 보겠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자네가 대답해 보게, 다른 제자에게 묻는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세수를 하겠나?"

이번에도 거침없이 대답을 한다.

"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이 먼저 씻습니다."

스승이 또 엄하게 꾸짖는다.

"역시 자네도 생각이 부족해! 사물을 깊이 생각해야 돼! '틀렸어' 정답은 둘 다 씻는다"가 맞아! 굴뚝 소제를 하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나? 그래서 자네들은 아직 내 밑에서 공부하기에는 아직 일러! 돌아가서 더 공부하고 와!

깊이 사고(생각)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서서 나왔다.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큰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허선행 제공)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42-04 Bayside Avenue, 10U A, Flushing, New York 11354  
e-mail: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